朝鮮日報
夕刊
十四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 獨蘇關係去益險惡化
## 獨逸大使館屬員及 其他關係蘇聯人도逮捕
### 擴大되는反幹部派連絡事件

【伯林十三日發同盟】 莫斯科에서 獨逸人逮捕事件이 五日夜에 發生하엿는데 그와 同時에 獨逸大使館附及 大學에 關係잇는 蘇聯人民도 多數逮捕되엿다 그中에는 莫斯科에서 唯一한 新教의僧侶 大使館出入의醫師 家庭教師等이잇다 다시 蘇聯官憲은 적어도 獨逸人과 私人關係가잇는 蘇聯人民의 家宅搜査도 行하고잇다고 傳함으로 事件은 益益擴大할것으로推測된다

### 蘇聯政府攻擊 獨逸諸新聞一齊히

【伯林十三日發同盟】 莫斯科에서 逮捕된獨逸人五名中 一名은莫斯科에잇는 唯一한外國公館인 드레스덴·레오벨케商會 莫斯科支店長 라이막크氏及 同支店支配人 리트아니아人람쓰氏도 逮捕되엿다고傳한다 此外에 內外人百數十名도 逮捕되엿다한다 지노비에프一派裁判으로 辣腕을 뵈인檢事總長 뷔신스키-氏出馬下에 一大裁判이行하게될것으로 豫想된다 全獨逸新聞은 獨逸人逮捕가 傳하매 筆鋒을 가티하야 痛烈히 莫斯科政府를 攻擊하고잇는데 就中 쁠리나·타-게·부랏트紙는 今回事件은 全然獨逸人을目標로한것이다 我等은 蘇聯의危險한行爲에 對하야 全獨逸國民의 注意를喚起치아니하면 아니된다 고論하고잇다

### 反蘇運動嫌疑로 獨技術者數名逮捕

【伯林十二日發同盟】 蘇聯政府는 反國家行動의 嫌疑로 獨逸國籍을가진 技術者數名을 逮捕하엿다 는데 데·엔·비-紙特派員의 莫斯科特電에 依하면 獨逸國籍者五名은 時計工場長, 書籍店主, 自動車技師等 모다善良한 市民이라고한다 其他莫斯科駐箚獨逸大使館出入의 蘇聯人數名 蘇聯人新敎牧師 法律顧問等은 그와 前後하야 檢擧되엿다 한다 右牧師는 背信運動의 牙城莫斯科에在留한 唯一한 宣敎牧師이엇다 莫斯科在留大公使館員은 日曜日에도 禮拜를 執行할수업서서 困難하고잇다한다

部隊는 手榴彈과 다이나마이트로써 叛軍을 攻擊하고 드디어 叛軍을退却시켯다 十一名民兵으로써 叛軍의 陣地를 奪取하야 敵의攻擊을 擊退하엿다고한다

日本서第一조흔電球 トウランプ 秋季特賣中 各電氣店에서

# 政府軍戰況好轉!
## 가首相首都進出
### 大勢不利로叛軍側은長期作戰
### 活躍하는人民戰線軍

시 叛軍은 戰車隊의 擁護下에 에스코발將軍麾下의 政府軍에反擊을試하엿스나 아스투리아스地方의 坑夫로써 組織된人民戰線軍에게 擊退되엿다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叛軍의 猛擊에 가바레로首相은 去七日首都를撤收, 발렌시아市에 赴하얏는데 戰線의 好轉과 同時에 十三日再次마드리드市에돌아와 防衛軍首腦部와 協議를遂한後 헤타페飛行場, 바레스카스市를連結한中央線을 視察하엿다 全線의 人民戰線義勇軍은 首相의 勇姿에 熱狂的歡呼를보내엿다한다

【마드리드郊外叛軍陣營에서 同盟特派員發十三日】 西班牙叛軍은 단숨에首都를 攻略할作戰이엇섯는데 人民戰線軍의 强靭한 防衛陣에 停頓이되여서 長期作戰에들어가지나아니할가思惟되며 아센시오將軍麾下의急先鋒 아키랄大尉는 十三日 叛軍陣營에서 말하엿다 總帥 프랑코將軍의 猛攻擊下에 首都를 攻略할 方針이엿섯스나 人民戰線軍이 首都郊外에서 意外頑强히抵抗함으로 軍은 最初의作戰을 變更치아니하면아니되게되엿다 今後豫想外의事件이 發生치안는限 結局首都包圍에 들어갈것으로 觀察한다

# 蘇聯,西政府軍을 物的으로 積極援助
## 衣服,穀物,魚類等을滿載한汽船이 발렌시야港에入港

【발렌시야十四日發同盟】 蘇聯國民은 西班牙內亂勃發以來 西班牙人民戰線에 對하야 盛히 物質的援助를 與하고잇는데 十三日에도 蘇聯汽船 콤소몰號가 兒童服一萬二千벌 唐黍二千八百四十七噸 小麥粉千噸 鯖四十三噸 잠五十噸을 滿載하고 발렌시야港에入港하야 市民은 歡呼하며 此를 歡迎하엿다 又同日夕刻 발렌시야市 아폴로劇場에 人民戰線의 示威運動이 이러나 各派代表가 列席하야 인터나쇼날歌를 合唱하며 氣勢를올리엿다

### 西政府戰況發表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西班牙政府는 十三日夜 戰況報告를 如左히發表하엿다 十三日朝來 政府軍은 攻勢에 轉하야 右翼戰線에서는 二日 叛軍을擊退, 午後에이르러 敵은 次卒中戰이 演出되엿는데 그 結果 叛軍飛行機四臺는 擊落 其他叛軍飛行機數臺는 後退하엿다 마드리드戰線의 軍事行動은 旣定方針에 基하야 着着進捗된다

### 叛軍飛行機六台 政府軍에게射落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마드리드防衛委員會 十三日午前發表에 依하면 政府空軍은 十三日朝來 마드리드西部에서 叛軍空軍과空中戰을展開드듸여敵機六機를射落하엿다 內四機는 叛軍陣地에 落下되엿다고한다 또 九臺의 政府飛行機는 敵의爆擊機三臺와 降伏勸告삐라를 撒布하는 敵偵察機九臺와 遭遇하야 壯烈한 空中戰을 演出한 後 드디어 敵機를 擊退하엿다 首都防衛委員長 미아하將軍은 空軍의 活躍에 對하야 微笑를띄이며 말하기를 우리實力은 完全히 發揮되엿다 首都防衛의 準備는 整頓되엇슴으로 如何히 包圍되드래도 何等 痛痒을感치안는다

### 政府軍續續 叛軍擊退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政府軍은 十三日夜俄然攻擊에 轉하야 드라마뉴레 街道의 叛軍에 反擊을 加하야 드듸여 四糧地點을 奪回하엿다 一方바세라方面의 別軍도 叛軍을擊退 重砲多數를 鹵獲하엿다고傳한다

# 須磨高宗武會談 又復虛事로終了
## 中國側態度逆轉

【南京十三日發同盟】 須磨南京總領事는 十三日午後九時亞洲司長高宗武氏를 訪問하고 深更에至하기까지 會談하고 第三次折衝을行하엿다 折衝內容은 側에依하야 雙方이모다 嚴秘에 附하고잇스나 此會議에서는 須磨總領事는 爲先上海居留民殺害의 刑事事件에 關하야 中國은 犯人逮捕에 誠意로써 努力하야달라는 것을要求하는同時에 「各地에서發生하는排日的事件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根本的取締策을 講究하여달라」는旨를 嚴重要求한後 張群部長과第八次會談에 對한 前交涉을 行한것으로 解釋된다 그리고 中國側의 內部情勢는 도逆轉하야 交涉進陟에 支障을 與하고잇는 模樣인데 今日會見에서도 意見一致를 보지못하고 川越·張群兩氏第八次會談은 來週로 交涉各般의 案件에 關하야 雙方意見 一致點發見에 努力하고다음川越 延期될 模樣이다

# 國土를賣却한 賣國軍을脫出하라!
## 政府軍은마드리드放送局을通하야 叛軍兵士에게通告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政府軍은마드리드 放送局을 通하야 十三日正午叛軍兵士에 對하야 左와如히 通告하엿다 諸君은 我等의 祖先이 建設한 祖國一部를 實質的援助의 代償으로서 外國에 賣却한 賣國的軍人傘下를 脫出하야 速히 我軍에 歸順하라

### 叛軍,優勢放送

【세빌리야十三日發同盟】 政府軍은各戰線에서 勝利를傳하고잇는때 一方叛軍 세빌리야放送局의放送은 十三日午前 左와如히叛軍의優勢를 傳하고잇다 戰局은 十二日以來 膠着狀態를呈하고잇는데 마드리드南方戰線에서 叛軍은 猛攻을試한政府軍을 擊退, 一方모라將軍麾下의 叛軍도 에스코리알地方에 進擊하야 政府軍將兵多數를 捕虜하엿다 다시各戰線에서 叛軍이 잇서는 데모다叛軍勝利에 歸하엿다 한다

### 假飛行場設置 政府,首都近郊에

【마드리드十三日發同盟】 人民戰線空軍部隊는 十三日朝來猛烈한 活躍을 示하야 着着成果를收하는데 確聞하건대 政府軍은 首都近郊에 假飛行場을 設置하고 同飛行場에 機關銃二臺乃至四臺를 裝備, 最新式戰鬪機七十餘臺와 精銳한 操縱士數十名이 待機하여 잇다한다 假飛行場의 場所는 嚴秘에 附하여잇다

### 佛레바논間 新條約締結

【베이루트十三日發同盟】 佛國政府는 委任統治領레바논共和國의 獨立承認에 關하야 過般來共和國과 交涉을 進行하고잇섯는데 겨우 交涉이 成立되엿스므로 佛國高等辦務官마르텔氏는 레바논政府代表와의 間에 十三日午前新條約을 締結하엿다 同條約의 要旨는 如左하다
一、佛國政府는 三年의期間을經過한後 레바논共和國의 聯盟加入을기달리어 同國에 獨立을 與할事
一、佛國은 레바논共和國의治安維持를爲하야 駐屯軍을常駐할事

# 匈牙利再軍備에 羅,체코兩國反對
## 再軍備實行期는不明

【로마十三日發同盟】 체코政府當局은 十三日匈牙利의 로마協定會議에 關한 聲明에 對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匈牙利가 小協商諸國과 一方的으로 再軍備를 하게되면 小協商諸國은 트리아논條約의 어느條項으로부터 解放되게되는것으로 認定한다 小協商諸國은 匈牙利가 再軍備에 對하야 調印한 또는匈牙利와의 相互合意下에 하고 또는匈牙利가 그軍備를 小協商諸國으로 承認하기爲하야 條約하다면 現在의 匈牙利의再軍備를 어느程度까지 認定할用意가잇다

【부카레스트十三日發同盟】 羅馬尼亞政府當局은 十三日匈牙利의 軍備平等要求에 對하야 羅馬尼亞政府는 그것은 不合理하다 匈牙利가 軍備平等을 承認되게되는것은 匈牙利가 條約을 破棄하는것으로 된다 此에는 伊太利 유고슬라비아·匈牙利도 各各二國間의 協定을 締結하게될 것이다 라고 豫想된다

다시 체코政府는 二國條約에 依한 相互의經濟協力을 希望하고잇스나 獨伊는 中央歐羅巴에서 廣汎한經濟的協力을 阻止하고잇다

【부카레스트十三日發同盟】 維也納三國會議의結果 匈牙利가 軍備平等을 承認하게되는것은 近東의 平和에 ...

# 新帝國建設目標로 무首相內治刷新
## 爲先民事刑事를全廢

【로마十三日發同盟】 무솔리니首相은 新帝國建設을 企圖하고 近來國內政治全般에 亘하야 大刷新을 斷行할意圖라고 傳한다 政府側의 漏洩한바에 依하면 그 手段으로서 民事刑事를 全廢하야 二十世紀에서 가장 重大한 司法制度의 大改革을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하며 目下 著名法律家及 司法省役人으로서 組織된 委員會에서 具體案을 作成中인데 改革內容으로서 傳하는바는 左와 如하다
一、小事自動車運輸事業等에 關한 金錢上紛爭은 各各組合委員이 解決함
一、勞働爭議는 勞働委員會가 解決함
一、內務省은 刑事問題를 處理할 委員會를 任命함
一、辯護士는 裁判官과 同樣官吏로서 國家로부터 俸給을 與하야 辯護料를 不受함
一、무솔리니首相暗殺未遂事件이 잇슨後 設置된 特別裁判所는 이미 國內情勢가 安定한今日 不必要하게되엿다는 理由로써 此를廢止함

### 警察部長會議 來月八、九兩日開催

三橋警務局長은 就任以來 朝鮮內의 警務一般에 關하야 各道 警察部長을 招集하야 管內狀況을 聽取하고 別로다시 警察部長會議를 開催할 方針이엿섯는데 南總督은 繼續하야 열리는 各種會議及 政務繁忙하야 自身各地方을 實地調査할 겨를이 업는 때문에 此際各道警察部長을 招致하야 一括하야 各道管內의 狀況을 親히 聽取하기로되여 來十二月八、九兩日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三橋警務局長統裁下에 警察部長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 今回會議는 諮問事項과 協議事項은 一切行치안코 總督 警務局長의 訓示와 다음 各道管內狀況을聽取하기에 그칠터이라 한다

### 白耳義 聯盟規約改正提議

【쥬네브十三日發同盟】 聯盟事務局은 十三日白耳義政府로부터 聯盟規約改正에 關한意見書를 接受하엿스므로 十四日此를 公表할터이다 今日까지에 同問題에 關한 聯盟의 諮問에 回答을寄한國家는 四十餘國에 達하엿다

### 루大統領比島訪問?

【華府十三日發同盟】 華府駐箚比律賓高等辦務官 쥬니아氏는 比律賓獨立法案의 立案者前上院議員호-푸스氏와 가리 十三日白垩館에 루즈벨트大統領을 訪問 比律賓產 椰子의 鹽으로 造作한 釣竿을贈呈하엿다 大統領은 大端히 欣悅하며 이釣竿으로 比律賓沖에서 낙질하고십다 고말하엿다 하는데 釣魚에 多趣이만치 루즈벨트大統領은 或은政務를 기달리어 比律賓을 訪問할것이 아닌가 思惟된다

# 佛兩翼議員間에 大亂闘의活劇
## 內相人身攻擊이發端

【巴里十三日發同盟】 巴里의 右翼週刊 「구랑고아-르」는 數週日前부터 사랑그로內相의 「歐戰當時」 「蒼惡」을 暴露하고 同時에 同內相의 「非國民的行爲」에 攻擊을 加하엿는데 右記事에 對하야 十三日 午後 佛國下院에서 聲明한것으로부터 左右兩黨議員間에 大亂闘가 演出되엿다 구랑고아-르의 暴露하는바에 依하면 內相은 一九一五年 戰線에 出征하엿는데 戰友의 死體를 收容하다가 捕虜되어 軍法會議에서 死刑判決을 바든後 死刑의 執行猶豫로 再次軍法會議에 붙친結果 겨우釋放되엿다한다 右記事發表後 內相은 …… 사랑그로-內相은 …… 死刑하엿슴으로 그 約束을 적히 여 一時 友軍을 넘다가 不幸히 捕虜가 되엿다 고 低聲으로 聲明하엿스나 右 首相의 演說이 始作되매 右翼議員은 「이- 乞食을 大臣이라」 對하야 사랑그로內相의 答辯을 妨害하엿슴으로 議員은 激昂하야 右翼議員에 殺到 兩黨議員間에 毆打, 亂鬪의 大活劇을 演出하야 議長이 休憩를宣言하여도 亂鬪를 鎭靜하지 못하야 多數의 守衛가 出動하여 겨우 鎭靜되엿다 最後에 사랑그로 內相에 對한 구랑고아-르의 誹謗을 委員會에서 審理한 結果 四百二十七票對百三票로 成立 다시 政府에 對하야 新聞의 個人誹謗을 取締할 法案提出을 委囑한 動議도 三百七十四票對二百一票로 可決되여 亂鬪의 幕을 다닷다 사랑그로 內相에 對하야는 이미 數週日前 參謀總長이 부랑스將軍及主된 出征軍人協會로서 事實調査를 시켯는데 內相은 一九一〇年一月二十日 軍法會議에서 逃亡捕虜로서 調書바덧슨데 不在한때문에 死刑判決을 밧지안흔것이 確認되엿다

### 總領事嚴重抗議

【上海十三日發同盟】 若杉總領事는 十三日午前十一時 市政府에 市長吳鐵城氏를 訪問하고 日本側調査에 基한 高瀨事件의 內容을 詳細說明하고 如斯히 續出하는 排日테로事件은 其發生地가 租界內外임을 不問하고 明白히 中國側의 責任이다 如斯한事態를 그대로 放置할時에는 重大結果를 招來할것이나 其責任은 一切中國側이 負擔할것이다 따라 中國側은 租界外의 取締와 함께 犯人逮捕, 抗日運動의 絶滅을 期하야 日本人의 生命保護에 萬全策을 講究하기 바란다 고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 本社參觀

◆中央佛教專門生十一人 金斗憲氏引率下本社見學

### 人事·集會

◆佐村信平氏(京城府民館長)新任人事次來社
◆中馬越之助(京城府立圖書館長)新任人事次來社
◆荒井末吉氏(同盟通信社大阪支社寫眞部長) 阪大病院에入院加療中 十四日午前一時 逝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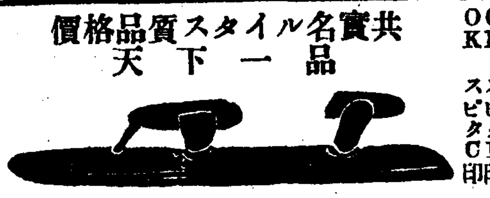
### 八面鋒

◇聯盟事務局의發表에 依하면 世界列國의 現在兵力은 八百二十萬으로 大戰當時보다 二百萬의增加라고.
◇무슨 醜聞을 이러케하는가, 國民皆兵의 나라도잇지아니한가, 大戰當時의 倍數는 二千萬쯤이니든가.
◇會社의公敵資金은 挑入資金보다 만흔것이普通이지만, 國家의兵力은 公敵보다 內容實數가 만흔것이事實.
◇戰爭을 複雜하기前에 兵力의 多募를云云함은 쓸데업는일.
◇群松公普의火因은 兒童의失火로判明.
◇一人의失手가 얼마나큰損害를 주게되는가. 說明하기에 조흔敎材.

癎疾 產婆, 麗食
「癎疾」의研究와治療 ……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融商會

恩給 五年分以上最低利長期立替擔保貸付 借換歡迎乞照會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融商會

山葉オルガン
お子様の為に
定價30圓より
(カタログ送呈)
日本樂器會社
京城本町一丁目(電本三四八五)

共實名品 スタイル質品價格 天下一品

OK印スケート(今年流線型)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金星書院スケート部
OK ロング用洋靴 A=4.80 B=4.30 C=3.80 同 同 練習用20錢上り
ハゲン ピタヂ CBA印 特價 4.57、0.05、5.50
電話本局②四〇四三番 振替京城二二〇七九番

耳鼻咽喉科 醫學博士 永日美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朝鮮北海道海陸物品問屋 並委托販賣 若杢大豆粉 麥芽製造販賣 共益商會 大阪市中央市場北通 金敬中

當選謝禮
本人이 今般振威郡米穀統制組合第二分區總代選擧에當選되엇삽기 有權者諸位와 一般有志에게 紙上으로厚意를 謝禮하나이다
振威郡松炭面西井里 李容孫 白
振威郡松炭面週日里 元濟東 白

クスリで面白い金儲け 思ふ藥が自由に出せる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日本通信製薬士學校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中等豫備事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

發動機 カスト
開業記念 品質優良 特別廉賣
特約店募集 在庫豊富
楠戶商會京城支店
京城府青葉町三ノ九八
出張所 京畿道安城邑內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此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 半減함
高等科 三十冊 一冊 六十錢 一年三個月卒業
普通科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卒業
(速修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植村外科病院
院長 醫學博士 李丙勳
副院長 京城醫學士 河野武
外科一般 レントゲン科
入院隨意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八五
電話 病院用 本② 〇二七〇番 自宅用 本② 一七九二番

性病 尿の病
病理療養書 無代進呈
腎臟 膀胱 尿道 淋疾 消渴 頻小便
◎誠に古い經驗
推奬された自療法の公開
本部 自療堂泌尿部 和歌山市公園前大道

加藤營業所 電話東局八二九番

# 三億三千萬圓으로 十個年繼續治水

## 大藏省이承認하면明春에着手

## 水魔退治의根本策

총독부에서는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근본대책을 결정하고저 일전에 총독부에 설치하엿든 조선치수의원회에서 결정한 답신안을 근본으로하야 이에대한 실행안을 세우고저 준비중이든바 대체다음과 가티결정하고 곳동경에가잇는 대야(大野)정무총감과 림(林)재무국장에게 보내여 결재를 맛게하엿다한다

즉총독부에서는

一、직할(直轄)하천이십일하천의 개수비로 일억천만원

二、중소하천의 조사와 개수비로 이억이천만원

합계삼억삼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십이년도부터 십개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치수의근본적개수를 실시하야 매년별수사가티 전조선을 휩쓸고잇는 수마의 근본퇴치를 도모하게되엿다한다

# "오직兒戲이니 寬大한處分을!"

## 壽松公普火因判明에對하야 野中校長의感泣談

수송공보(壽松公普)화재원인이 그학교오학년생도의 「렌즈」작난으로 판명된것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학동은 열세살인 형사책임이업는 어린아이로 단순히 리과(理科)에서 배운실험을 해보랴는 어린이의 호긔심으로 말미암은 일로서 소관종로서에서도 십사일내로 그취조를 끗마치고 학동을 양중(野中)교장에게 돌려보내게될것임으로 물론이사실은 서류만송국될것이다 십사일오전에 긔자는동타지안코남은 강당에서 공부를하도록정돈을하고잇는 양중교장을 방문한즉 대단죄송하다는낫츠로 다음과가티 말한다

우리학교아이가 한장난으로그와가티 큰일을저즐르게 된것은 결국제가 잘못한것과 가튼일입니다 그날밤로 그애가 내에게라도 말하여 주엇뜨면 더조흘번 하엿습니다만 그러나 석냥가튼것으로 불작난한 것보다는 배운것을 실험한다는것이 장소를 잘못택하야서 그러케되엿스니 종로서에서 생각해줍시사고나 사죄할까요 경찰에서도 관대히 처분하야 오늘오후에 아이를바드려오라는 기별이잇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원회에서 의론하여서 하겟습니다만 관대하게처분하야 보은감사(報恩感謝)에서 자라나도록 긋까지 그애를 잘길르고 가르치겟습니다 아이성격은 평소에 대단양전하엿습니다

# 竊盜한姙婦에 同情物品寄贈

파부의 설움은 파부나안다—그보집이일오후세시쯤에 부내 본정통(本町通)평전(平田)백화점에 부내아현정(阿峴町)사는 김모(金某)의처 리성녀(李姓女)가 임신구개월이란 무거운 몸으로 장차출생할 어린것을 생각하며 무의식중에 물건을 훔치다가 본정서에 검거되엿섯는데 동서에서 임부의 특수심리를고려하야 관대한처분을하엿다는 조간신문기사를 읽고 동정의 눈물을흘리며 가엽슨미래의 어머니에게전하여달라고 경찰에물품을 가저온 기특한 녀성이 잇다

십사일 오후 한시 십분쯤에 부내 서대문서 보안계에는 변령이 이십사오세가량 되여보이는 일본내지인 녀성이 어린것을 업고 와서 동서원에게 신문에서 보앗노라고 하며 보통이를 전하며 전긔 리성녀에게 전하여 달라고한후 성명도 고하지 안코 자취를 감추고 말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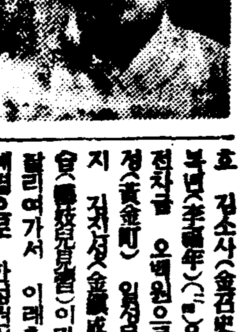
동서에서는 창졸간에 물품을 밧고 조금잇다가 보통이를 열어보니 그속에는 어린애기저귀 양말 등 작나간파 굿세인 비성이 되시다 하는 편지등이 드러잇섯는데 그서에서는 곳 본정서에 조회하야 리성녀에게 전하기로 하엿다 한다

# 原因모를客屍

십삼일오후다섯시쯤되여 시내 태평통(太平通)이정목 룡일려관(龍一旅館)에유숙하고잇는 약사십세가량되여보이는 조선남자가 갑작히죽엇다 그는 그날죽기전 약세시간전에 그려관에 차저온것이라는데 관할경찰서에서 검시한결과 「모루히네」중독자로 판명되엿스나 도형사과(刑事課)에서 검사한결과 동(胴)에 멍든 곳이 이곳저곳 잇음으로 도경찰부(道警察部)와 그서에서는 그사인(死因)에 다소의문을가지고 계속수사중이라고한다

# 自稱"椿姬"童妓

## 팔려간몸으로행순이



황금의 쇠사슬에 억매인 조선의 「나나」「춘희」(椿姬)가 반항(反抗)의 활살과함께 집을 떠낫다.

편동정(貞洞町)이십칠번지의사호 김소사(金召史)의 셋째딸 리복년(李福年)(一七)은 지난 사일 전차금 오백원으로 시내 황금정(黃金町)일정목 이백칠십번지 김진석(金鎭錫)에게 예기견습(藝妓見習)이라는 명목으로 팔리여가서 이래춘희(椿姬)라는 예명으로 한성권번(漢城券番)에 다니고잇다가 수일전 경찰에제출함. 서류가 잘못되여 집으로 갓다도라오다고하고 떠나간채로 도라오지 안는다고한다

(사진은 도라오지안는춘희)

# 人絹密輸九十名 稅關吏와大亂鬪

## 安東縣에上陸刹那에衝突

## 新義州署도應援出動

【新義州】십사일오전한시반 안동현금탕정(安東縣錦湯町)칠정목 일번지에 거주하는 면포밀수업 장시구(張時龜)외구십여명이 신의주약죽정(若竹町)이성호(二成號)라는 면포상으로부터 인견(人絹)천여필을 안동현으로 밀수출을하려고 부내압천정(鴨川町)어시장(魚市場)하류강안에서 목선세척에 분승한후 압록강을건너 류초도(柳草島)대안 안동현오도구(五道溝)에 상륙하야 밀수품을 운반하려고 할때 마침안동현세관의 생내(生內)전상(田上)천곡(淺谷)촌상(村上)등네명이 달려드러 밀수품을 압수하려고함으로 밀수단은 이에대항하야 밀수품을 빼앗기지 안으려고 장방에 란투가 이러나자 세관리측에서 일본도를 빼여들고 란자함으로 밀수단은 타고왓든배에 뛰여들어 조선측으로 도라오려고 할때 세관의생내(生內)가 배에뛰여 들어 밀수선을가지못하게하얏스나 밀수단 에게 쪽행을당케되자 살려달라는 비명을 올리고 강중에 뛰여들엇다는데 정보를밧고 동일오전세시십분 안동세관으로부터 경비선이 출동하야 수사에노력하엿스나 아즉까지 강에뛰여 들은세관리를 발견치못한점으로보아 익사(溺死)한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방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안동세관으로부터 정보를밧고 동사건의관련자 장시구(張時龜)동부내 미륵동(彌勒洞)장재흥(張載興)외 십여명을 검속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 電報紙에 華麗한그림을그려

## 來月一日부터一般에使用

慶祝·弔慰

체신국에서는 오는 십이월일일부터 경축(慶祝)조위(弔慰)의전보에도 특별히 그림을 그려박인전보용지를써서 취급하기로되엿다 이것은오는 십륙일의 관보(官報)에「경조전보규측」(慶弔電報規則)으로서 발표하고 종래에「년하전보규측」(年賀電報規則)에의하야 취급해온것은 이번에폐지하고 이경조전보규측에가운대에 합처서 규정하여 실시하게되엿다

취급지역은 조선일본내지사이와 조선일본내지사이 륙지선박(陸地船舶)사이이며 조선만주사이는 년하전보만을 취급하고 이규측에의한 경축 조위전보는 당분간 취급하지안는다한다 그래서 만주로보내는 경축조위의전보는 일반전보로 취급하게되는 셈이다 그러고종래에는 년하전보에「언문전보」를 취급하지아햇스나 이번에는「언문전보」도 취급하게되엿다 이것은경축 조위관계의 언문전보리용자가 점점 만키때문이라한다 그 과재방법에는「례문전보」(例文電報)와「임의전보」(任意電報)의 두가지가 잇는대 례문전보라는것은 미리정한 문체로 례를들자면「축결혼」이라는 문구와 가튼것이오「임의전보」라는것은 이문체대로 하지안코 자긔마음대로 써서보내는것이대 될수잇는대로「경조전보」의 리용자는 례문전보의 문체에 따라쓰는것이 편리하리라한다

그로문의 례문전보에 대해서 종래의년하전보와 동액의규칙로금이며 대체로 전보의 「일음신」(一音信)의 료금이다 「임의전보」는 일반사보(私報)의 료금과 마찬 가지로 언문은 일문자가 넘어가면 료금을 더밧게되고 회문 전보는 열다섯자가넘게되면 료금을더밧게된다

(사진은 그림을 그린전보리신지)

# 壽松公普에 同情金遝至

## 貧困兒에게三百圓寄附

수송공보(壽松公普)화재참변에 대하야 시내 각학교에서 동정금을 모집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십사일 아침에는 시내수하정(水下町)어떤학동보호자가 이름을 숨기고 현금 이백원을 내여와서 특히 빈곤한 리재학동에게 노나주어달라고 하엿스며 수하공보후원회(水下公普後援會)에서 현금백원이 들어오고 속속 다른곳에서도 동정금이 답지하고잇는데 학교당국에서도 동정금은 될수잇는대로 빈곤한 학생에게 한하야 쓰겟다고한다.

## 漢江松林에縊死屍

십삼일오후세시쯤에 부내한강통(漢江通)송림중에서 소나무에 목을매고 자살한청년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경찰에알려왓는데 그청년은 수원읍내(水原邑內)김성문(金性文)방에 유숙하는 민기현(閔圻鉉)(二〇)이라는 것을 알엇다 자살한원인은 염세자살인것갓다고한다

# 全南協議會事件 第七回公判續開

## 五十一名被告中三名만病缺

【木浦】루보=전남협동위원회사건의 제칠회공판은 예정과가티 지난십삼일 오전열시부터 광주법원목포지청 제일호법정에서 피고오십일명중 삼명은 전과가티 병으로 출정치못하고 나머지사실심리가 속정하엿다 그리하야 정각이되자 굴부(堀部)재판장의 주심과 김(金)검사관여하에 롱구(瀧口)량배석판사의열석으로 마상춘(馬場春)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를시작하야 조정구, 김홍곤, 오원석, 조순석, 김갑년, 리정모 등 칠명의 심리를마치고 동오후네시경에 폐정하엿는데 차회공판은 오는 이십일에 계속개정하리라한다

## 盈德에市內電話

체신국에서 경북영덕(盈德)읍의 통(通)으로 되여잇든 [illegible]

# 鐵條網을느리고 세파드犬도增置

## 安東縣에門衛詰所를新設

## 結氷鴨江密輸防止策

【新義州】남(南)조선총독과 식전(植田)관동군사령관의 회담으로 철저히 취체하기로된 밀수근멸책(密輸根滅策)에의하야 신의주서에서도 수일전 부내밀수단근거지를 습격하야 밀수자의간장을 서늘케하고 안동세관측에서도 밀수단 거두를 한거번에 검거하려고 방침을강구중인바 위선 목전에 결빙기(結氷期)를당하야 밀수단의 자행을예상코 밀수단의통로(通路)로 되여잇는 안동역 장안(江岸)구내에대한 경계방침을 그간만주국세관과 안동역에서 협의중이든바 수일전에 이르러 계획수립을보게되엿는데 취체방침계획을보면 다음과갓다

밀수방지대책의 하나로 강안구내전부에 철조망(鐵條網)을 울치고 그우에 지금까지 적지안흔비난을 밧고잇든「세파드」개를 부근일대에 배치하여 특히 야간경계에 사용하기로되엿고 또 강안부근상빈(上濱)으로부터 하빈(下濱)에 이르러는 밀수자의 출로가되여 더구나 선박회소(船舶詰所)부근에 잠행이 심함으로 밀수자의연락중단(中斷)을식히는동시에 다시안동역 화물계에서는 선박회소부근에 문위(門衛)힐소라는것을 여기에도 세파드개를 배치할예정으로 동계(冬季)에들어강상 통행인에게 엄며위협을주리라한다

# 旅窓서飮毒自殺

## 城大法文學部會計員

원적을 궁기현(宮崎縣)에두고 시내효제정(孝悌町)삼백이십번지 하천(下川)의집에 하숙하며 경성제대법문학부회계게(城大法文學部會計係)사무원으로잇는 서모전무광(西牟田武光)(二〇)은 십삼일 밤열한시쯤되여 전긔하숙집이층 자긔방에서잔채로 출근시간이훨신지난 십사일아침 열한시에도 일어나지안흠으로 깨이려가보니 벌서죽어잇섯다 소관동대문서에서 검시한결과 독약자살로판명되엿스나 유서가업서 원인은알수 업스나 실련이나 혹은회계사무에 부정사실이잇지나안흔가 추측된다고한다 이사람은 고향에서중학을마치고 소화오년 동대학도서관에근무하다가 소화구년 회계게로넘어온것이라고한다

# 拳銃窃盜逮捕한 內野巡査를褒賞

루보=십사일오후네시쯤에 부내 돈의정(敦義町)에서 [illegible]

로서장은 십사일내야순사에게 각가상금을수여하야 그의공로를 표창하엿다한다

# 醫師試驗合格者

의사시험제삼부에 합격한자는 총독부에서 십사일에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李聖貫 朴宇恒 盧演欽 張秋義 許鳳明 笠井政司 徐光鶴 鄭棠樺 皆吉達 田中茂 白樂道 安應瓊 古川正雄 張旭演

#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京城地方 맑은으며 一時는 흐리다 明日도 맑으며 一時는 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 | | |
|---|---|---|
| 昨日 | 最高 | 一〇度四 |
| 同 | 最低 | 一度二 |
| 今朝 | 最低 | 一度八 |
| 今日 | 正午 | 一二度九 |

# 廿一名生埋者中 屍體五個를發掘

## 吉州朝鮮炭坑續報

【淸津支局特電】긔보=십삼일오전일시반 함북길주군덕산면덕신동(吉州郡德山面德新洞)에잇는 조선석탄광업주식회사(朝鮮石炭鑛業株式會社)길주탄업소(吉州炭業所)에서 작업중의"붕락"(崩落)으로 갱내(坑內)에 떠러저 이십일명이나되는 로동자가 파무처버렷다함은 긔보한바와 이급보를 바든 구호반은 곳현장에 달려가서 생매(生埋)된 이십일명을 파내기에 노력한결과 십사일 오전아홉시까지에 일백마흔자를 파서 다섯개의 시체와 중상자한명 경상자한명을 파내고 게속발굴중이다 이십일명은 모두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로 그현장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울려 보는사람으로 하야금 눈물을지아내게하엿다

◇新築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 梨專의優勝은 거의確定的

## 最後의榮冠을目標로奮戰

## 女子專門卓球第二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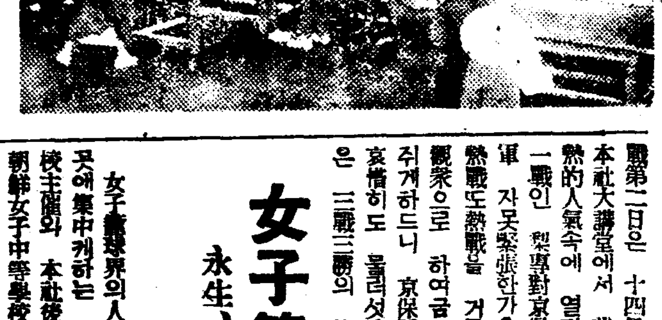
戰第二日은 十四日午後一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前日에倍加한白熱的人氣속에 열리엇다 이날第一戰인 梨專對京保의對戰은 兩軍 자못緊張한가운데 開戰되여 熱戰또熱戰을 거듭하야 滿場한觀衆으로 하여금 손에땀을 쥐게하드니 京保軍戰運不利하야 哀惜히도 물러섯다 이로써梨專은 三戰三勝의 快績으로 優勝은 거의確定的으로 되엿다 그리고 女神對梨保戰은 激戰끄테 梨保가勝捷하엿다 이리하야 이날最後의榮冠을目標로 各校代表들은 가진奮鬪를다하야 奮戰力鬪하고잇다(夕刊으로막까지의戰績은다음과갓다)(寫眞은競技光景)

梨專3 京保0

○金慈瑗 3…2 李令梯×
○李鍾瑞 3…2 林炳淳×
○韓平淑 3…0 申奉媛×
陳玉出 … 朴桂香
李元淑 … 吳原福

梨保3 女神1

×李敬淑 1…3 宋富元○
○全明玉 3…2 兪貞淑×
○邊恩惠 3…0 韓允玉×
○金福女 3…1 申玉蓮×
全寶石 … 金良順



高麗卓球聯盟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一回女子專門學校卓球聯盟

# 女子籠球對陣決定

## 永生、樓氏、好壽、培花、梨花參加

## 本社後援의中等校大會

女子籠球界의人氣를 오로지한곳에集中케하는 梨花女子專門學校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三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는 來二十一日(土)午後一時(豫定으로)부터 梨專體育館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이에豫選하야 母校의名譽를걸머지고 奮鬪할代表는 멀리關北으로부터 咸興永生女子高普、元山樓氏女子高普등비롯하야 昨年에榮譽스러운 栄冠을차지한 開城好壽敦女高普는勿論이요 第一回大會의優勝팀으로 昨年에는好壽敦에게 王座를앗가웁게도빼앗긴 培花女高普와 大會마다實力以上의 力量을 發揮하는 梨花女高等 五個校이다 이날의對陣은 各校代表者와 主催側關係者가 今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 本社會議室에會合한가운데 다음과가티 抽籤決定하엿다 競技開始는 午後一時正刻인데 京城市內學校는 當日午後零時三十分 京城驛發列車를利用하기를바라며 入場式은零時四十五分에 役員과및選手一同의記念撮影이 끗난다음 뒤이어行하기로되엿다

- 培花女高 — 開城好壽 1·00
- 梨花女高 — (勝者) 3·00
- 元山樓氏 — 咸興永生 2·00
- 決勝 4·30

## 女子卓球賞品寄贈

第一回女子專門學校 卓球聯盟戰에 다음과가티 各處에서 物品을寄贈하엿다한다

朝鮮體育會 天一藥房 三好化粧品會社 大京스포-츠商會、白商會 九鼎商會 高花堂


# 사랑의 사도

「예수」교의 주지는 사랑으로 一관한다 그리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것으로 첫째를 삼고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대 제몸과가티하라 함으로 둘째를 삼는다 흔히는 이에 대한 뜻을 오해하야 남에게 사랑을 밧지 못한다는 허여떠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동시에 사랑의 도리 까지를 부인하고 심하면 라당하는 일도 업지안이 잇는것이다

네전에 「바울」은 「유대」민족으로서 근본 자기 민족을 위하야 열렬한 성심을 가진자이엿섯다 마츰「예수」를 밋게 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바닷어 자기 동족에게 말고 이방사람에게로 가서 전도한 결과 적하 만민이 다 구원을 엇게하랴는 사명을 실현코저한것이다 그리하야 「유대」자들 중에는 「바울」이 본국을 배척자라고 비난하는자ㅣ 만헛든것이다 그러나 사실인즉 「바울」이 진실로 사랑의 사도이엿섯다

첫째는 저가 말하기를「나는 주예수의 이름을 위하야 결박을 밧을뿐 아니라…죽어도 맛당하다」하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야 목숨을 바릴지라도 즐거움으로 당하겟다는 뜨거운 사랑의 결심이다

둘째는 저가 말하기를 「내가 큰 근심이 잇서 마음에 항상 애통하노라 대개 나의 형제 곳 골육의 친척을 위하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끈허지는데 까지 이를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엿으니 진정한 「예수」교인이면 동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것은 물론이다 다만 교인의 정도가 보통한것을 인하야 도리의 정체까지를 비난하지 말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흉년을당하야 이방에서 만흔 구제금을 모하다가 본국에 곤난한 형제들을 구제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이 교통되게 한것이다

皮膚科 비뇨기과 花柳病專門 新光醫院 院長 金相明

十一月十五日開院
醫學博士 金晟鎭外科
外科一般診療、入院隨意
京城府瑞麟町一三三番地 電話光化門③一七九〇番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簿記珠算科 ◇タイピスト科 ◇昭明修業后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
(學則送呈) 京城府太平通入漢門橫入(電本四、七六一番)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有利事業
各種藥品及衛生材料、化粧品、滋養料、工業藥品、醫料器等販賣할地方信用者를男女老少를勿論하고一市一人에限하야募集하오니希望者는左記各項을記入하야申込하시요
一、履歷의槪況
一、投資金額豫定
一、開店하실營業場所
建藥品 化粧品 衛生材料 醫療器 滋養料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十七番地
卸問屋 合資會社 都大藥房 地方部 中尾

독일コッホ박사신발명한폐병균엔
肺病 新藥 유-고-루
폐병은되접 부촌증 [illegible] 코ッホ박사가 세계적 위대한발견을하야 천지를 진동케한 結核菌이 폐를파먹음으로 생기는 두려운 傳染病인바 폐병환자의 당국현미경으로 검사하면 約三億個의놀나운 결핵균이잇다。內務省統計에 依하면 일년간에 約五十萬名이 폐병으로 신음하야 그중約十七萬名의 귀중한생명을 빼앗기는 무서운 악질이다。폐병에 걸녀도 初期는 潛伏性이만하야、여간 집중키어려움으로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알기쉽다。이와가티 부지중에 병균은 지독히 활동하야 一期、二期、三期사긔가되고 마다 실상 폐병균가티 여러가지중세를 이르키는病은업다。그러나 結核菌만 업세면 되는데 종래에는 아모효력도업는 부적당한 치료법을 과신하야 공연히 치료할때를 놋치고 병을들면죽고 살지못한다고 한탄만하엿다。
아모리惡性三期의 폐병이라도 꼭낫는약이라면 당세나 열줄의복으로 신효함을 환자자신이 자각할것이다。有恒社藥品部에서는 불행한환자를 구하기위하야 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 신발명하신 高級治肺藥「유-고-루」를 복용하면 殺菌과 排膿作用을하야 복약후 고이 대다상쾌하고 두통이나 완고한열도나리고 구미가생겨 식욕이 진하고 원긔가나서 혈색이조와지고 쇠약을회복하야 살이 오르고 침、담、도한、오한、숨가뿐것、피로하는중세나 혈담 가슴압흐고、역구결리고、사지가압흐고、뇌곤한중세등이 綜合的으로作用하야 卓効를 본다。병별약을 다쓰고 백방으로 모든 치료를하여도 낫지안어 고통하는분은 생명은 귀중한것이니 일시라도 속히 高級治肺藥「유-고-루」를 쓰시요。약갑 삼십원 이십원、이기용십원、초긔용오원、송료 선금우료、대금인환 삼십오전
京城府苑南町二一九
發賣元 有恒社藥品部 電話光一四三〇番
有名藥房에서販賣함

KB型 ミツタ發動機
付ットネマタ轉運

三馬力半 四馬力半 五馬力 六馬力 七馬力半 十馬力 十二馬力 十五馬力

關谷式 ベスト籾摺機
全自動型 唐箕付型 摺落シ型 頭部型

全自動一文字型

關谷式 ベスト自動送込脫穀機
所要馬力 三馬力半 十時間能率 二百叺

井河原式稻板機

大和號製繩機

二人用 一人用

仕上付 仕上ナシ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株式會社 水田發動機 工作所 代理店
オリエンタル發動機鮮滿代理店
關谷農具製作所 全鮮代理店
橫濱護謨株式會社 京城代理店

金剛商工社
京城蓬萊町一丁目
電話本局 六三三九番
振替京城一七五一六番

# 勿失好機

## 百補丸一箱無料進呈期限도
## 滿期迫到不遠締切되오니
### 機會를일치마시고一日速히注文하시요

不老長壽·更少年藥

高貴漢方

補血強精

## 百補丸의由來

百補丸은 昔日中國에 神人道師葛玄眞人의 絕世秘方藥으로서 이藥을常服하면 實로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다는 神方名藥입니다

平和堂이多年間 莫大한勞力과 經費를드려가며 苦心探索의結果 드듸여 千古에무쳣든 百補丸秘方을 求하야 널니江湖諸氏에게 頒布하게된것입니다 百補丸이 世上에發賣되자 그效力이非常함으로 貴族 兩班 各界朝野名士를비롯하야 四海諸氏의 熱烈한賞讚과 愛用推奬을밧고잇는中입니다더욱이 只今 世界第一紀念으로 百補丸一劑사는분께 (十圓包半劑入) 一箱式 無料進呈中이오니 機會를일치말고 只今即時 注文服用하시요

滿期締切期限이 不遠 하엿슴니다

## 男女老少

一、老年이 쓰면 更少年이되고

二、壯年이 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 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靑少年이 쓰면 精神이聰明한秀才가됨니다

**陽氣不足、氣血不足은 長壽못할前兆**

一、氣가 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白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消化不良、체증、속병、등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短命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靑春이되시요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藥이됨니다

◉눈이발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五장六부를 다 잘補하야 참말陰陽變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增進됨니다

◉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 速效합니다

◉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 잇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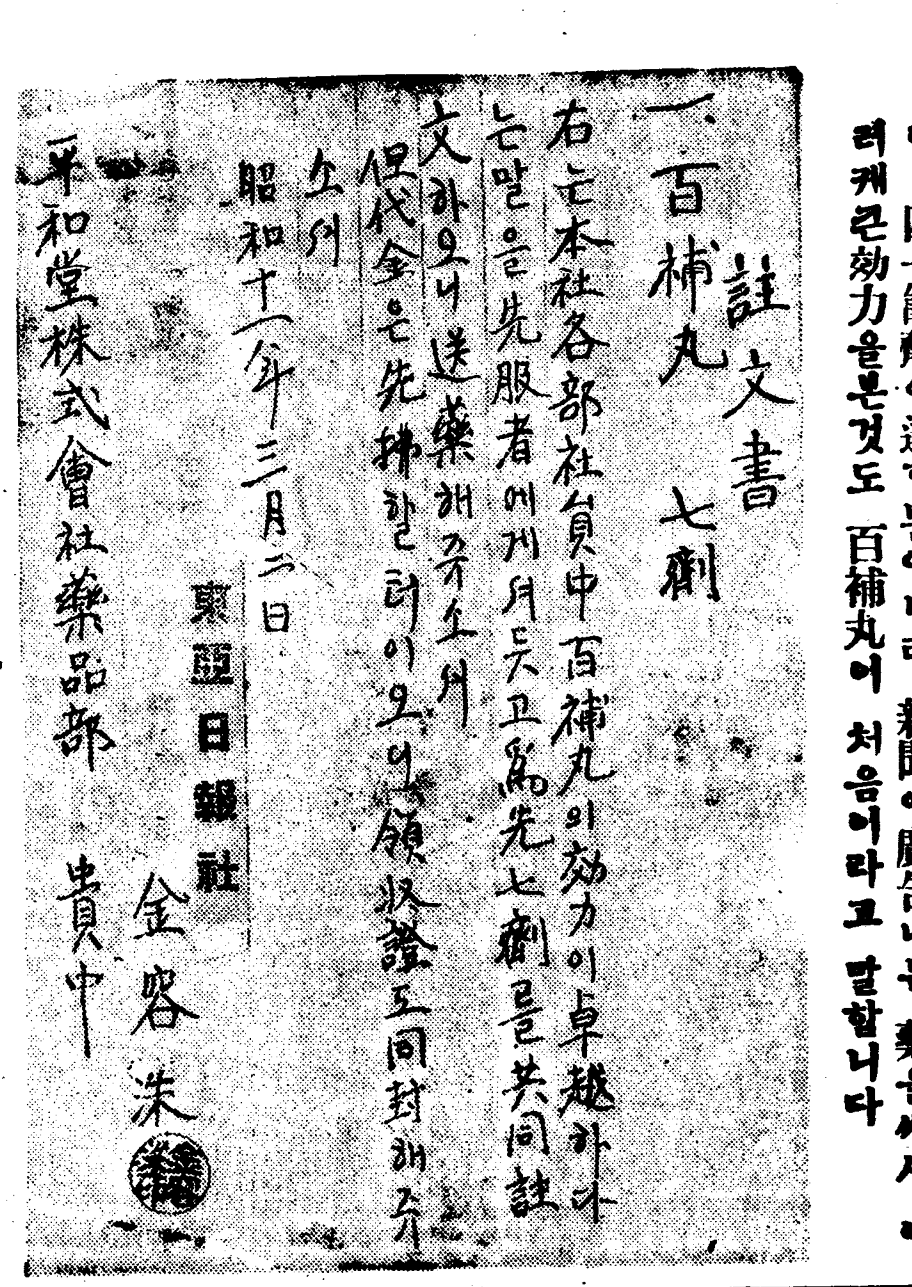
## 百補丸效力證明의一例

### 萬金不換의此事實

一、百補丸이 엇던藥보다도 참말 조타는것은 廣告가아니라 實際事實이 證明합니다

二、全朝鮮各地道廳、郡廳、金融組合、面事務所 員等을비롯하야 各銀行 會社團體에서 共同注文이 날마다 踏至하는것은 百補丸이 事實로조타는 證據입니다

三、東亞日報社에서만도 幹部 社員 工場員等의 累次共同注文이 四十餘劑에達할뿐아니라 新聞에廣告나는 藥을써서 이러케큰效力을본것도 百補丸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註文書

一、百補丸 七劑

右는本社各部社員中百補丸의效力이卓越하다는말을先服者에게서듯고爲先七劑를共同註文하오니送藥해주소서

但代金은先拂할터이오니領收證도同封해주소서

昭和十一年三月二日

東亞日報社 金容洙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貴中

## 先着一萬人限無料進呈

世界第一紀念一

躍進日本쓰포ー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伯林에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榮光의마라손一等! 政府는國民保健을爲하야 一千萬圓의保健費를豫算하는等健康問題로天地가振動하는이때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同胞의健康을爲하야또는世界的쓰포ー쓰를紀念祝賀하기爲하야 損益不拘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十圓分一劑사시는분께百補丸(十圓包半劑入)一箱式을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남보다먼저一日速히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든 無料進呈은中止함니다

●注文書에는必히(祝賀特賣注文書)라고明記하시요

**藥價**

一劑 特價 拾圓

重用 二十圓

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獎勵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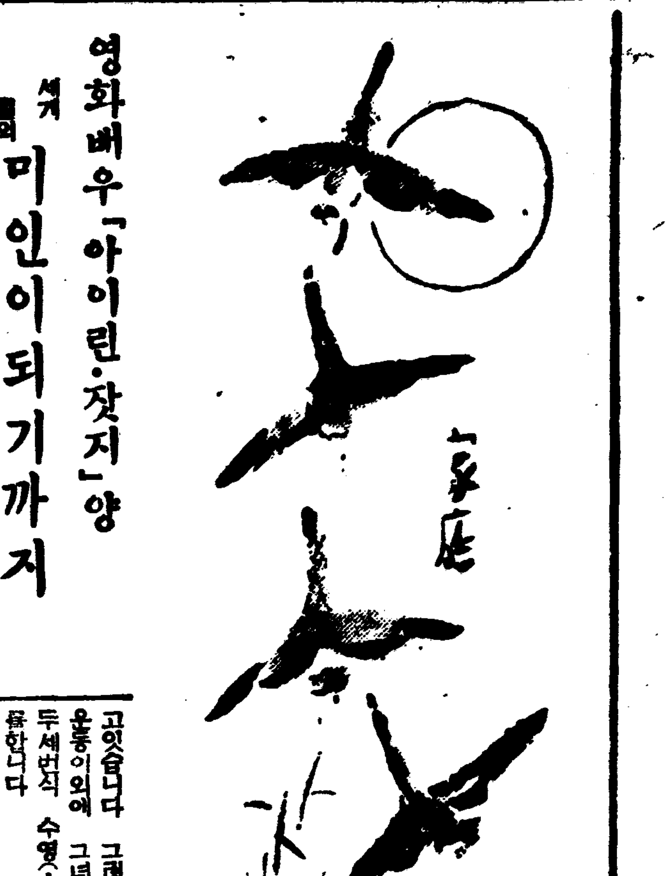
三、全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 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全朝鮮大藥店에 委託販賣募集中

#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 (電光)六三二一 (振替五番)




## 영화배우「아이린·잣지」양 세계의 미인이되기까지
### 「뷔-나스」와꼭가튼체격

누구가 어떠니 어떠니하야도 세계에 제일가는 미인은「아이린·잣지」라는 활동사진녀배우라고합니다 그녀자가 세계적미인이되기까지는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도못할수업는고심이 잇섯다는것을 알려주어야할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범서세계적、된다는데 여간한고생이 잇지안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그저세계적이라하야 한개의짤막한 이야기거리로 집어치우나 당자는 오래ㅅ동안의고심과인내로 꾸준한노력을 쌓허왓다는것을 알려주어야할것입니다 그녀자는 하로한번식 천정위에 자전차를 타고도라단이고 오늘날아름다운 육체를가지게되엿습니다 그녀자의육체는 육체미근대사(育體美近代史)의 찬란한 첫페이지일것이며 현존한육체미인중의 왕좌를점령하얏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육체미의 리론이 붕괴되지안흠이상 적어도 이녀자의 지위는반석우에잇다고 볼수잇습니다 육체미의 비결에대한 그녀자의비방공개에의하면 방바닥에 반듯이누어서 천정을치어다보고될수잇는대로 발을높게들어서 천정위를 자전차로 도라단이는것을상상합니다 그래서 흡사히 자전차「페달」을 밟는것처럼 다리를 회시키는것입니다

그리하야 그것을거려단이는것처럼 다리마듸를 폇다가 오그리고 오무렷다가 펴기를여러번 계속하는것입니다 이러케 오래동안만련습하면 미인이될수잇습니다

그녀자는 지금이것을 계속하고잇습니다 그런한데 이독특한운동이외에 그녀자는 한주일에두세번식 수영(水泳)과「테니스」를합니다

그녀자는 별다른 규정된식사는업고 무엇이나 먹고 시프면 닥치는대로 먹어서 세계게서사랑하는 려시적인 몸뚱아리인「미로」에잇는「비-너스」녀신과 꼭갓습니다 즉 신장이오척 체중이 칠스톤이폰드 가슴두레가 삼십이인치반 허리가이십사인치 방영명이가 삼십오인치 팔뚝이 륙인치입니다 이러한 육체미의왕좌!를 노리고 그녀자의 아성(牙城)에 육박하야 육체미 세계제일을 쟁탈해볼용기잇는 녀인은업습니다

### 사랑니가나랴는지

問 금년 이십이세된남자인대 지금부터 삼개월전에 어떤친구와 언쟁끗테 벌금을마진일이잇슴니다 그런지일주일이못되야 왼편아래어금니부분이 부어서고생을하얏는대 다른사람이말하기를 사랑니가나랴는것으로 그럿타하기에 그대로두엇던이 제절로낫슴니다 그러나 그후로도 이삼차 또고생을 하엿습니다 아직 사랑니가나오지안하얏습니다 무슨관계일까요 마진것으로빼가 상하여서그런가요(牙山蒼杏生)

答 사랑니즉지치(智齒)가나려할때에마즌것이겟지요 빼가상하엿서 그리된거스로는 생각할수업습니다 한번 치과전문의에게진찰하야보십시요 사랑니가 나려면여러번 고생을하게되는일이잇스니 동통이업시 예방할수도잇슬거십니다(聖世病院長 朴秉來)

### 몸이약하고키가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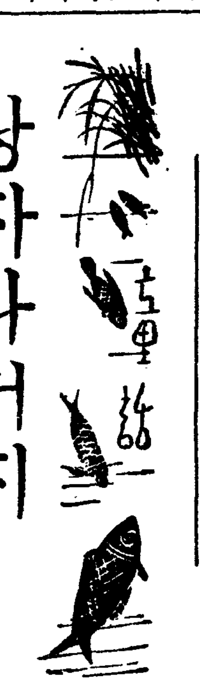
問 생은 금년십칠세소년이온대 몸에는아모고장은 업스나 대만몸이 약하옵고 키가매우작어걱정입니다 먹으는식노 소화는잘됩니다 어떤한운동과약을쓰면좃켓슴닛가 하교하야주십시요(愛讀者)

答 아모중세업시 약하다하니 그약한것이 어떤정도인지요 소화도잘된다하니 기생충이나 업는지 검변을하여보십시요 키가적은것은 체질로그런거시나 아즉멀엇습니다 이십오세까지는발육할가망이잇스니 차점은 끗까지 기대리십시요 운동은 정구홍은 철봉이조흘거십니다(聖世病院長 朴秉來)

### 공상이심하다

問 이십삼세남자인대 밤이되면공상이심하여 잠을자지못합니다 신경쇠약증인것 갓습니다 적당한주사약과처방을 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龍泉讀者)

答 공상으로인하야 잠이잘오지안는다하니 공상이업도록평소부터규측적으로 생활을하야보십시요 또는한가지일에만열중치마실거십니다 주사로 적당한거슨「소라트손」이란약을 십이회쯤주사케하야보십시요 내복약은 일정치안하니 내과의사에게 진찰을밧고 복약케하십이조코 또는처방으로만은 낫기어렵우니 측접으로 지도를 바더야속히 나흘수가 잇슬것입니다(聖世病院長 朴秉來)



## 왕자와거지 ⑥

마-크·로웬 作 崔秉和 譯

「자미잇다、자미잇다。그다음막(幕)을 계속해랑。」커테서 톰의아버지가 떠들엇습니다。그러드니 별안간

「야、난 이년 벳트、너이들은 례의를 몰으는년이로구나。이곳을 어디라고 생각하고잇느냐? 황송하게도 황태자전하 아피아니냐。」칸티는 이러한말을 하면서 혼자서 큰소리로웃고 조와햇습니다。딸들은 아버지말에 웃줄하다가 다시 사랑하는 동생을위해서 먼저「난」이가

「아버지 고만 좀즐자게내버려두세요。잠을 푹잘자면 밋친증이 나을듯하니깐요」

그말에 연달어서 「벳트」도

「아버지、다른때보다도 퍽지친것가트니 일즉자게허세요、내일은 빈손으로 도라오지안토록 저희들도 잘말할테니요」하고 간청하엿습니다。

「옹、내일은 진진놈에게오십전을치를날이다。반년치의 집세다。이것을 치르지못하면 우리들은 두말업시 쫏기여나갓다。돈을내노라。쓸데업시도라다니기만하고、대체 얼마나 버러왓니?」

할머니잡다못한왕자는 몸을바로잡드니

「또 너는 그런무례한말을 함부로 하는구나。되푸리하는것갓지만 나는 황제폐하의 오즉하나인 황태자전하다。」

「뭐、엇저고엇재—」말이 쫏나기가무섭게 칸티의모백힌 무지스러운손이 왕자의 동얼미를 소리가나도록 후려갈겻습니다。왕자는 빗틀하드니 어머니 무릅에가벌떡 나가잡바젓습니다。어머니는왕자를 두손으로 꽉끼여안드니 자기몸을 방패로삼고 비발가티 내려오는 칸티의 주먹을 열심히 막고잇섯습니다。

딸들은 무서워서 방한구석에가 옹쿠리고 안저잇섯습니다。

두누님과는 딴판으로 그귀신가튼 할멈은 자기아들인 톰의 아버지편을 들라는지 침대에서 기여나려왓습니다。왕자는 어머니손에서 빠저나오면서 말하얏습니다。

「친절한부인! 나는 나로인해서 약한당신을 괴롭피게하고십지안소。얼른 몸을비키시요。그리고 나뿐 두사람에게 내몸을 내맥기시요」

이 사내다운 씩씩한 말은 더욱더욱 두사람의 노여움을 더해줄뿐이엿습니다。칸티와 할멈은 들이렴벼드러서 왕자를 실컨 때리고 들복근다음에 두딸과 어머니까지도 왕자편을 드럿다는 리유로 속이 시원하도록 때려주엇습니다。그러고나서는「또 어더맛기전에 어서 잠자코 자거라。공연한일로해서 나도 긔운이 지첫다」

방안의 초불은 꺼지고 집안식구는 모다 자리에 드러누웟습니다。그러드니 얼마안되여서 칸티와 할멈의 코고는소리가 나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러니깐 딸들은 왕자가 두려운듯이 살작기여와서 춥지안토록 누더기이불과집푸래기를、만히더퍼주엇습니다。어머니는 빵조각을갓다 주엇습니다。왕자는 그친절한것은 뼈에사모치도록 깃벗지만 그러나 이세상에나와서 처음으로 지독한게혼이나고 몹시어더마진뒤라뭐 먹고시픈생각도업섯습니다。가령 잇다한들 이러케단단하고 식검어케탄 빵부스러기가 왕자의목구녁으로 너머갈리가 만무하엿습니다。

### 一〇、도망가는「칸티」

밤몃시가되엿는지 알수가 업는데 누가 문이 깨여저라하고 뚜들기고 잇섯습니다。이소리에 맨처 칸티가잠이깨엿습니다。

「어느놈이냐? 밤중에문을 뚜들기는놈이……」그러니깐 밧게서

「여보게、칸티、악가 자네가참나무막대기로 따려서넘게한사람이 누구인지아나?」

「그까짓놈 아라도고만、몰라도고만아닌가。」

「흥、아조 배포가유하이그려 자네가 따린사람이 지금 다죽게되엿네。그리고 누군줄아나、바로 안토뉴선생님(톰을사랑하고 톰에게왕자이야기를들려주든늙은중)야。」

## 쏘프라노名歌手 朴景嬉孃獨唱會

오는二十一日밤七時半 府民館에서

京城女基靑主催 本社學藝部後援

유-모어小說

## 姓女씨 (八)

金熊超 作·畫

### 戰績의記錄(2)

「가긴 제가 어딜가요?」

「앗다、내눈으로 본배 다름업는데 그러케 잡아떼면 되나。어서 고백하지」

과장은 여전히 웃는낫츠로 캐고드럿습니다。동료들도 말은안치만 직주진듯 귓짓이 민보군을 달고치는격이엇습니다。

「네、저-、찻집에 간거말입니까?」

「아-니。찻집간게 그리숭할까닭잇나? 그게아니라니까 그래」

「그럼、뭐입니까。선술집들린거말슴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저-다마 친것말슴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무어입니까。…그리고 오뎅집들린거……그밧겐업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

가엽슨 미보군은 머리만 득득 글것습니다。

「당신이 어제밤에 나뿐짓을했건 아니했건 내가 상상할필요도업거니와 설사 했을미한일이잇섯다치드래도 남의사생활에대해서 비판을 다할까닭이잇소? 민보씨가 보매보다 순진한것도 잘알고 그런짓을 안햇슬것도 아는데 단지 문제되는것은 결혼한지얼마안된분으로서 부인이 너무사랑스럽다고지나친괴롬을까치니말이지。……이만중고야친구되어서못할께잇소?하하하……」

(과장은 원채웃기를잘합니다)

「그러치 그러칭。그것도 내가잘알지。그런데 내가 민보씨의행갈시인이아닌바에야 민보씨의동홀알까닭이잇소……내가 알라안것이아니라 악가대에서서 전화가왓습디다。-당신네들이 옥상에 올라가잇는동안에 말이야분명히 부인의목소린가봐…처음엔 민보씨게시냐구그래。안게시다구그랫지。오늘출근하섯는데 지금자리에 안게시다구 대답할밧게잇

과장은 속、답답한듯이 회전의자를 탄채 한바키 빙그르 도라섯습니다。그리고 나서 한손으로 턱을고이더니

「참 어지간히 질긴사람이군! 내가 빤히 아는일을 저러케내숭을떠니 사람이 살노릇인가。내가 그만치 말햇스면 진작되는일이 잇슬거아니요? 내가꽁개를하리까?」

「……」

그제서야 민보군은 황홀한듯이 꿈먹은 벙어리가 되여 물떵어리처럼 피어오르나츠로 씽긋우섯습니다。눈치빠른과장은 벌서그것을아라채린듯이 「진작무릅을 꿀 일이지。그러케 내숭을 떤당 에이 사람두! 그러나 늘그런짓을 해서는 못쓰는거요」하면서 자세를바로가젓습니다。

민보군은 이말을듯자마자동료들의 눈치보기가급햇습니다。그러나 몽백군과 태하군은 서로이마를 맛대고 우스며 속은거립니다。관수군은 전표뒤등에 민보군이 보라는드시 벌서「너요놈 조화작구나」하고써노앗습니다 이러고보니 설마!햇든 친구들까지 알것은 다안듯는모양。한단서(但書)로써 변명할길바게업섯습니다。

「그러치만 박선생이 는바와가튼 나뿐짓은 안햇습니다。그저 회나는일이잇서 그랫지요……」

「그러면 그거민보씨의오해요 송。그러고서 생각을하니까 민보씨가 간밤에 집에 안드러가잔것이 확하단말이야。민보씨가무슨일로나가잣나 십호면서 어째거나 가정쟁의를면케해드리느라고 민보씨는 간밤에 다른분대신으로 수직을하시고 또오늘새벽에는 회사의급한일로 시외에갓다오시구햇습니다、누구십니까?햇지。그랫드니 저쪽에서 나를꽁범자로아라는지 뭡테당신은 누구서요?그래。할수잇는가 엉겁결에、여기과장입니다 그래버렷소 그랫드니 저쪽에서 아모말업시 먼저 전화를탁끈어버립디다」

「만히 해보신 장난이군요」

태호군의말을따라 모두들우슴빗치엇습니다。

「여보 해보잣단이다뭐용 처음에는안그럴랑십는연극이 그만서틀러서 민보씨에게대해서 속으로 여간켕기지안햇소。이만저만하게 부자연해서야지。그리고 내가급사라고한것은 당신네들중의 누구일음은댓다가가틀친구니까신용을아하면어쩌나십허서그랫고…」

「도리허 그게 걸작입니다。염녀맙시요、나종연극은 저이가할테니 한목끼시랍니까!」

관수군은 신이나서 틀고이러낫습니다。

「어-시려시려 나는인제그런연극이실소!」

과장은 그동동한 몸으로 여내손을내저으며 허리를 범려뒤로 제처슴니다。-일본옛날이야기에 나오는 너구리 처럼。


頭痛이잘낫는名藥

ノーシン 노-신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흥분되어잠못들때나 過度한讀書로睡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곧빗는즉효입니다

명쾌해집니다 어려케기묘하게 잘낫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 떨어지지못할藥이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모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노-신을勸誘하도록 가르처주십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藥店에잇습니다 사실때 帽子印잇는 노-신에 限하옵니다

| 藥價 | |
|---|---|
| 四包入 | 二十錢 |
| 七包入 | 三十錢 |
| 十三包入 | 五十錢 |
| 廿八包入 | 一圓 |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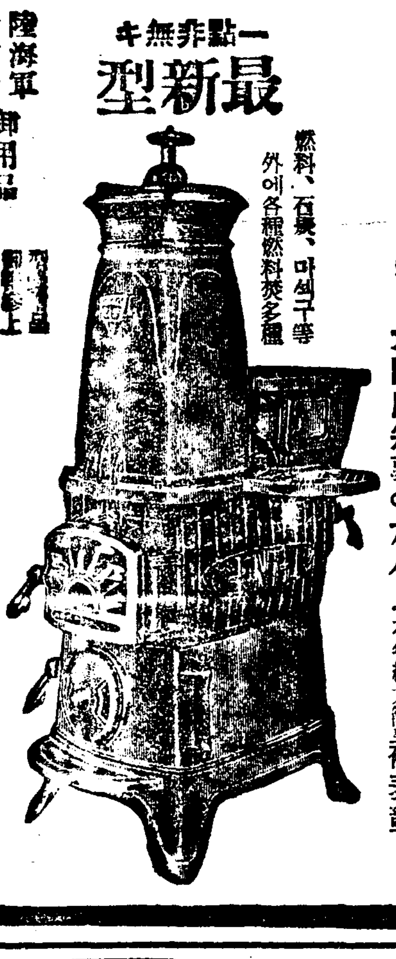


センターストーブ 센타-

此光榮 前에 帝國發明協會에서『昭和八年』被表彰 또 大阪府知事에게서『本年紀元節』被表彰

一點非無キ 最新型 陸海軍 諸官衙 御用品

燃料、石炭、마세구等 外에各種燃料兼多種



製造元 株式會社 山本最商店
代理店 三井物産株式會社

特約店 京城府本町 釘本金物店

12日より16日まで

洋服記念日の大呼び物

實用 背廣 オーバ 大特賣會

新しい柄に型に各種寸法豊富に取揃へて御座ります

優良既製各品三種奉仕

冬のセビロ 十八圓
冬のオーバ 十七圓
冬のトンビ 十五圓

本年流行の逸品を豊富に取揃へ生地値上げの折柄昨年と同樣の安値にて入念に御調製申上げます

冬背広別誂奉仕
舶來ウーステツト其の他及び優良國産生地にて……… 三十三圓、三十八圓、四十三圓

冬オーバ別誂奉仕
日本毛織、御幸毛織等の高級國産生地にて……… 三十五圓、四十圓

實用的な舶來生地にて
背廣別誂奉仕
スポーテツクス、スコツチ、ツキード等…………
¥60.00均一 100着限り

國産及び舶來生地にて保溫と實用を兼ねた
オーバ別誂奉仕
ラクダメルトン、ベイル地等…………
¥60.00均一 100着限り

京城 三中井 洋服部



團成社

十四日封切(四日間) (毎日)十時半、一時半、大時二十分(三回)

二十世紀폭스社超特作 윌리암데이-레監督
華麗한巴里
루우에-여스팟트·파라소主演 愉悅靑春篇!춤과노래와 뿌라이안도레뷔主演

◆RKO라듸오超特作映畫
두얼골
凶惡無道의깽그映畫!라듸오가 자랑하는메로드라마!

◆新興キネマ提供 千惠藏푸로超特作映畫 村川實監督 片岡千惠藏主演
情熱の不知火

(大週十八日封切)小公子、사랑의彈丸



第一劇場 大成功

十一月十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最大巨篇豪華選篇 毎日三回晝夜公演 一回正午十二時부터 二回 三回七時始映 料金 大衆 階下十五錢均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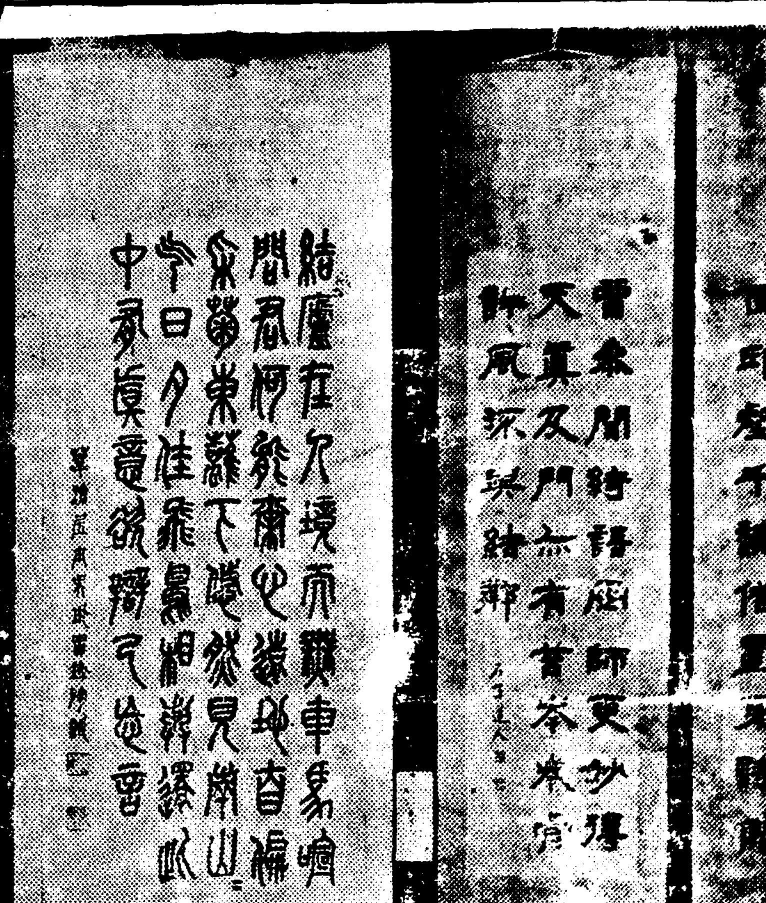
◆松竹京都 下加茂特作品、貞劒 大下宗一氏 原作
時代名篇 血刄の譜
坂東好太郎 結城一郎 光川京子 大內弘氏 共演

◆유니버살社特作品超特作映畫 監督 루이스·마이룬스톤
戰爭活劇 西部戰線異狀업다
루이스·에이아스 루우아이·일 主演

◆유니버살社作品

## 協展書譜 (二)

篆書[illegible] 葦滄 吳世昌氏筆 (左)
隸書二幅 石丁 安鍾元氏筆 (右)



## 第十五回 맞는 「協展印象記」 ⑦

安夕影

▲鄭寅燮氏는 以前展覽會에서 研究엿다는이로 이번의「白雲仙館」은 偉容볼수잇는 平凡한 作이나 初學者의 떼를 버슨것은 否認할수업다 亭子가든것은 엄보려 설二렷든지몰라도 構幅全面에서 이것부터 點景에 부드치게한것을 보아 成功하지못한 作品이다

▲李勝培氏의「牧丹」亦是平凡하나 牧丹꼿의 水氣를 드러내려는것이 取할點인데 엇잿든 이분에게는 너무도 눈에 익은 그림을 그리지말고 새것을 보혀달라고 하고십다 即 創造하라는말이다

▲李碩鎬氏 |이분은 靑道에도 一家를이루엇다는이로시 끌두메에서 寫學을 하든이라 한다 ○氏의말엇다나 東洋畵의 山水畵는 모두가 飛行機를타고본듯 ○가는것이엿다는 말을 못고보면 이그림은 實景아페서서본 그림일것이다 그러나 東洋畵에잇서서도 線을 貴重히 안다면 이그림은 그 貴重한것을 내여버린그림이라아니할수업다

▲李惟台氏 이분亦是 以堂의指導를 바든이라하는데 어딘지 多分히 以堂派의 筆致를 볼수잇다 淡泊한것이 더욱그렷다 그러나 이것을 完成品으로 아려서는 進就가업슬것이다 그것은 어듸이고 未熟한데보담은 早熟하다는 危險性을가지고잇는까닭이다

▲張遇聖氏 이분의「山百合」은 얼는 떼이지안는 作品이다 여기에는 그物象을 어떠케갓다노앗느냐는것과 웨 천百合을 그렷스며 그百合을 살리기爲하여서 어떠한것에 힘을드렷느냐가 問題가된다 또그조그만幅에 여러송이의 百合을어떠케 제대로 살게하엿느냐는 것이생각되는것이다 그그림한幅에서 그作者의 個性을뚜렷이보히는데는 그作者의 習慣을 옴기우려야될줄안다

▲李用雨氏—이분의「晩菜」라는것은 拔群하게 안되는것이요 氏一流의 才氣에서 나온蔬菜다 그런데「秋韻」과「月上時」는 氏의 異彩잇는 筆致를 보혀주엇는데 이것을 氏의 一代의 傑作의 그하나로보기에는 氏의力量을 疑心하는 罪가 되겟고 東洋畵部에 잇서서 그대로 지내치게하지안는 作品이라고만 말해둔다 「秋韻」이 取할點이 더만코 「月上時」는「月」에 對한 概念도 주지안코 그 바우미례 배(鮎)는 얼는눈에 띄이지안는다 다만 이月上時는 才筆이라 할것 取할點이잇다

▲李漢行氏—의「春閑」는그리神奇할것은 업서도 戱畵로서는 물술니잇다

▲朴勝武氏의「秋巒」은 寫生한것가튼것이 조흔 特徵이다 東洋畵는 대개가 作家 自身의 空想을 엽테로 옴겨노는것인데 이분은 산 題材를 가저오라는데에 努力하는것이 보히다 이것이 氏에게는 큰 힘이되든것이다 다만 晩景나 다른업스되 生氣가 잇서보히는것이조타 그러나 너무자차분하다 어떠케 작은것을 조케複雜한것을 省略할수업슬가 氏는 여기에 努力해야만 될줄안다.

▲卞寬植氏—의「長壽山屛風」은조금 色調가 稀薄하다 또한 옛날의 힘찬線이 잘보히지안는다 그러나 氏만가지고잇는 氏의 爽風만은 잇지 안혓다 이것이 氏를 爲하야 損失이 아니同時에 새것을 보혀주지 안음이 損失이다●

▲金殷鎬氏—의「白鷺」는 이畵셔도 말하엿지만 이小品한게에서도 氏의 全實力을 볼수잇다 白鷺가 사뎃고 白鷺에서 떼러지는 얼두어조각에서 氏가 얼마나 ○에 物象觀察에 애쓰는가를 엿볼수잇다 이作品은 實로 아름다운 作品이다 氏가 東京에 美術에 씨—즌마다 東京의 길을 떠나는것이 조금도 虛事가아니엿슴을 이作品이 말하고잇다 그러나 아프로 以堂이아니면 안되는 作品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金殷鎬氏—이분은 近日에 快作을보혀주지안는것이 섭섭한대 이번作品에서도 未完成임을 보혀주엇다 「秋景山水」의 小비탈의線을너무 쉬웁게 取扱하엿스며 「花鳥」에잇서서 꼿의 遠近을 너무 郊外觀한늑김이잇다 前日의 그아름답든 作品을 다시언제나 보혀줄른지 모두가生活때문인지 모른다

## 十一月創作評 現代女性의 性格 ⑤

嚴興燮

『墳墓』李無影氏作 『朝鮮文學』

雜誌記者 卓은 自己故鄕에잇는 四寸동생의 危篤하다는편지와電報를받고 自己故鄕인 C州로나려간다 四寸동생 승탁은

一弱一 한體質을가진 靑年으로서 勞働夜學을 五六年間이나 繼續해나려왓기때문에 期於히 病魔의몸이되여 危境에빠지게되엿것이다

이作品은適하야 『승탁』이라는 한개典型的인 이땅의 情熱的青年을—더구나 農村에파뭇치여 文盲退治運動을 해나가는 一個無名의健實한 進歩的인靑年을 發見할수잇스。

어作品은 半以上이 『승탁』을 차저가는 탁의 途中에서 回想場面으로 展開되엿으나 讀者에게 別로矛盾한 늣김을주지안는것은 요민조밀한 散文美를가진 이作家의 健實한 筆致때문이다 事件의줄거리는 너무도 單純하고 平凡하다 그러컨만 이作品의構成된 事件의 雰圍氣는 決코單純치안타。오히려 表現에잇서서 너무도 過剩만큼 豊富하다、그러컨만 승탁이가 勞働夜學을하다가 病魔의 몸이 되기까지의

一經一 過가 너무도 짧은 두세마듸의對話로表現된것은 이作品으로서는 너무 疎忽하게取扱되여잇지나 안흔가 한다

또한이作品의 처음에 탁이가 雜誌記者된것을 正面으로 紹介한것과 그가 東京엇던K라는小說家의집에 처박혀서 허울조흔 留學을 햇다는 엡소드는 이作品構成上 별로 必要치안흘가한다 이主題를가지고

내가만일 作品을쓴다면승탁이가 생활으로 가진艱難과苦鬪를겨다가 病體에빠지는데까지의 場面만을 主線的으로굵게그리겟다

『한性格』朴榮濬氏作 (朝鮮文學)

氏는 이달에 四海公論에도「敎授夫人」이란 作을썻다 먼저「한性格」부터 읽어보기로한다。

『明姬』라는 한

一知一 識階級의女子가 「창훈」이라는 의사에게 시집을갓다 그러나 그들의사이에는 愛情이 업섯다 愛情이 업다는게아니라 창훈이는 明姬를 爲하고 밧들으나 明姬는 그것에 그다지 滿足을못늣긴다。

창훈이는 이作品에 나타난것으로보면 퍽善良한 男子다、그런데두不拘하고 無條件하고 창훈이를 실혀하는것은 무엇때문인지 具象的으로 表現되여잇지안타。 더구나 明姬의 친구 메리가 訪問을 왓슬때 「이화」라는 明姬의 옛날 愛人(?)——(이作品에는 조곰도 明姬의 옛날 愛人으로서 表現되여잇서야할● 事件이 조곰도 업다。)——이 檢擧되엿다는 新聞을 보앗다는 이야기를 듯고 명희는「이화」를 생각한다 그리하야 여러날前의 「이화」와 꿈을 記憶한다。 그리고는 창훈이를 속이고 동무집에 단녀온다는 口實로「이화」가 拘禁中인 大邸를 나려온다 그리하야

一大一 邸에나려서 「엽사쓰」를사가지고 「이화」를 面會하려 가려다가다시 발걸을 反對方向으로 돌려노는다。

—現代朝鮮의 知識階級女性가운데는 그夫婦關係에잇서 또는 그社會生活에잇서서 그思想生活에 업서이러한 矛盾을 內包하고잇는 아 自己스스로 그矛盾을 만들고잇는 類의 不徹底한 性格을가진女性이 업지도 안타 그러한 典型的인이물을 그리려한것이 이作品「한性格」의 重要한 意圖가 아니엿든가 생각된다。

그러나 明姬와「이화」와의 옛날의愛情關係가 나타나지 안엇가때문에 讀者는 明姬의行動에 不自然과 矛盾을늣긴다 不自然과 矛盾이라느니보다도「이화」에 對한明姬의情에 도로혀 不快와 아울너 苦笑를늣기게된다。

첫재「이화」가 어떤사람인것을 一般讀者는 잘모른다 그가 무슨일을 하다가 警察에 檢擧되엿는지? 그가

一進一 步的青年인지? 狹雜輩인지 阿片쟁인지 그것모른다고 할것이다。

이것은 作者가 너무 이作品構成을 槪念만을가지고 對햇기때문이아닌가한다

더구나 明姬가 그男便「창훈이」를 한개의말하는 人形처럼 動物園의 원숭이처럼여인다는說明은잇슬지언정「창훈」이의 行動에 어듸가 그런點이 나타나잇나 讀者는 그것을 發見치못한다。

機히적은 問題이지만 明姬와 食母와의 對話에 잇서서 조금도實感을 못늣기게한다。그用語가主人과 食母로서의 對話로서는조곰도 特徵이 나타나지 안는다。

다만 이作家가 主人公「明姬」로하여금 良心的인人間을 맨드러보것다는 意圖에對한것을 가진것만이 散服할點이라할것이다

## 醫學漫筆 (三)

—職業病— (上)

鄭槿陽

職業病이라는것은、어떤職業에 從事함으로써 不可避的으로 그리고、아모리注意하야도 그職業에從事하고잇는限 免할수업는病을 이른다。現代와가티 機械文明이極度로 發達되며 더더구나 化學工業이 勢力을펴고잇는때에 잇서서는 더욱큰意義를 가지고 잇는것이다。精巧한機械와 多量의生産을 자랑하는反面 許多한 人間이 이러한施設때문에 犧牲當하고잇다는것을 이저서는 안이되는同時에 이러한病을 未然에防止하기에 모든努力을 악기지말어야할것이다

人造絹絲製造에는 二硫化炭素가發生한다 이에從業하는사람은 不可避的으로 이毒한까스를 吸入하지안흘수업고 中毒狀態를이르켜 마침내는 精神病이되고마는것이다。工業中毒이다 또潛水作業等業에 기픈물속으로 드러가지안흘수업다 이때에는 氣壓이노파지는關係上 壓力이노프면 노플사록 作業하는時間이길면길사록 體內에吸入되는 窒素로因하야 놀라울만한 害毒이미치게 되는것이다。이것이 甚하야지면 潛函病이되다。기픈물속에서는、氣壓이 노픈以外에 酸素가缺乏해버리고 惡性까스가 體內에숨어드니 身體의平衡은 깨여지고 鼓膜도터지게되며 出血、頭痛、嘔吐、眩暈等 여러가지症狀이오며 心臟筋肉과、關節이 뭡시도압흐고 呼吸이困難해지며 마침내는 心臟의麻痺로 生命을버리게되고만다。一種의文明病이다。日前、大京城市民歡呼裡에 開通式을擧行한 漢江의人道橋도 華麗한 그가운데 이러한犧牲者의 貴한피가석겨잇다는것을 이저서는 안이된다 이들에게의 同情으로 한거름나아가서 積極的救濟策과 및此等不祥事를 未然에防止할 떠한裝置가업서서는 안되겟다。

其他 獸肉商 屠夫 毛革製造業者等이 그런動物의 媒介로써 脾脫疽菌의 洗禮를받는때도잇다 이런것은 生物에依한害毒의 하나이다。

職業에依해서오는 災害中에 職業病과는 區別하야생각하지안코면 안이될것이엿스니 職業災害가 곳 이것이다。이것은 그個人의 그때의環境에 조치못해오는지 또는不注意로 또는 그個人의素質로 오는것等이다。그職業에從事함으로因하야 거이必然的으로 오는것은아닌어떼문이다。이런種類의災難에는 다른사람은 걸리지안흘지 몰으는까닭이다

例를들면 冷凍裝置에 故障이생겨 그中에서 암모니아가나와 암모니아中毒에 걸리는것等이다。그리고또 다른한便 色素를取扱하는사람의皮膚가 色이變하다든지 늘 멜빵을메고다니는사람이 엇개에 메디가생긴다거나 또는 放菜勞働하는사람이 손가락에메디가생기는等도 職業病이라고 하지안는다。이러한變化로因하야 그職業을 더욱더 能率的으로 遂行할수잇슬것이요 健康上 何等의 障碍를 볼수업는까닭이다。

其他 職業에依해서 特有한病勢를 이르으지는안흐나 그로因하야 몸의抵抗力이弱하여지고 따라서 어떤것이 病의素地를 짓고 다른原因이 쉽사리侵入하게되는수가잇다。事務所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册床아페만 붙어잇기때문에 몸은 漸次로不知中에弱해지고 胃腸과 呼吸器等이 次次로 抵抗力을잃어 慢性的인胃腸病 또는肺結核等에 사로잡히게되다。特히 近來에와서 절믄 靑年에게 肺結核이 놀라울만치 蔓延되고 그로因한死亡率이 더욱노파가는것은 職業으로 因한 心身의 消耗를素地로 달려드는 結核菌의威勢를 이길만한 抵抗力을 喪失한 까닭이라고 생각할수바게업다。이러한것을 職業病에對하야 職業老라고 부를수 잇겟다

## 新刊紹介

▲大東文化 十一月號 發行所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一ノ七ノ一五 大東文化協會 振替東京六六八五四番 定價十錢

▲佛敎時報 第十六號 發行所京城府嘉洞町五ノ三七 佛敎時報社 振替京城二三八四三番 定價五錢

▲基督敎報 第八十一號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五錢

▲朝鮮文學 十一月號(內容) 創作=호박꼿、弱質、黃金山、擴墓、한性格、파축、말하는벙어리、어느老人의죽엄外三篇、詩=鄕愁、落葉、海豚外三篇、評論、暗黑期의文藝는 隆盛하는가、한글藝術의個性論、隨筆等 發行所 京城府敎若町四五八 朝鮮文學社 振替京城二四六八八番 定價三十錢

## 讀者社交室

▲李相殷兄 京城府會議員選擧도지나서 그다지밧부지아니실것 하오니 兄의作品長篇小說『愛慾時代』를 곳發表해주서스면 感謝하겟습니다 出版이되겟스며『傳說의漢陽』은 脫稿가되엿는지요 一讀者

▲十月十一附(日曜日)社交室에 記載된 左記書籍(處世道、무쇠탈、端宗哀史、僧房悲曲……等)等을 讓渡하는사람에게 斡旋 左記住所로 書籍價格과 讓渡方法을 仔細히 通知하소서 慶北義城邑中里洞 姜大榮

▲社交室을 通하야묻습니다 昨日左記와如한書籍을 實渡코저한 분은 左의住所로現價格을 仔細히通知하심을바람니다

書籍名

一、處世道 一、무쇠탈 一、端宗哀史 一、僧房悲曲 一、海王星 一、눈물 一、달밤 一、籠中美人 一、사랑나라 一、再生 一、無情

鳳山郡舍人面文井里 姜文昌

## ★曆★

十一月十五日(日)

舊丙子十月大(初二日)

辛丑·土·房·滿

●祭祀에宜함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 「조선어표준말모음」 (12)

### 첫재、가튼말(同義語)

###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ㅟ를 취함】
바퀴(名)輪
바쾨
사귀다(動)交
사괴다
자취(名)跡
자최

●ㅟ와 ㅚ의 通用
【ㅚ를 취함】
석쇠(名)炙鐵
석시
참외(名)甜瓜
참이
참의

【ㅣ를 취함】
부시(名)燧鐵
부쇠
비치다(自動)照
비최다

●ㅗ와 ㅜ의 通用
【ㅜ를 취함】
제웅(名)芻靈
제옹

●ㅜ와 ㅟ의 通用
【ㅜ를 취함】
꾸역꾸역(副)連出貌
뀌역뀌역
순무(名)蕪
쉰무
예순(名)六十
예쉰
여순
여쉰
우선(副)于先
위선

【ㅟ를 취함】
귀글(名)句文
구글
글귀(名)句
글구
따위(名)類
따우
더위(名)暑氣、暑症
더우
뒤주(名)扁庋
두주
두지
자귀나무(名)合歡木
자구나무
추위(名)寒氣
추우
치위
치우
오뉘(名)兄妹間
오누

●ㅜ와 ㅡ의 通用
【ㅜ를 취함】
까무러치다(動)氣絶
까므러치다
까무러뜨리다
까불다(動)簸
까블리다
꾸러미(名)苞
끄러미
꾸럼지
끄럼지
꾸부정하다(形)曲貌
꾸브정하다
끄물끄물(副)明滅貌
끄믈끄믈
가물가물하다(形)杳然
가믈가믈하다
가물다(形)旱
가믈다
가물치(名)鱧
가믈치
가무리다(動)匿
가므리다
가뭇없다(形)無形迹
가믓없다
가무스름하다(形)淺黑
가므스름하다
거룩하다(形)偉大
거륵하다
거무죽죽하다(形)淺黑
거므죽죽하다
거품(名)泡
거픔
버큼
거푸집(名)型
거프집
겨울(名)冬
겨을
고구마(名)甘藷
고그마
고불고불(副)屈曲貌
고블고블
고부하다(形)小曲
고브하다
고부장하다(形)稍小曲
고브장하다
구불구불(副)綏曲貌
구블구블
구부하다(形)綏曲
구브하다
구부정하다(形)稍綏曲
구브정하다
그물(名)網
그믈
다물다(動)含口
다믈다
더불다(動)與
더블다
두레박(名)汲水瓢
드레바
두리바
드문드문(副)稀疏貌
드믄드믄
드물다(形)稀
드믈다
-ㄹ수록(語尾)를수록
-ㄹ스록
-ㄹ사록
-려무나(語尾)가려무나
-려므나
머무적거리다(動)躊躇
머므적거리다
무릇(副)凡
므릇
부터(助)自
브터
브럼
비둘기(名)鳩
비들기
설다루다(動)不取締
설다르다
수더분하다(形)淳朴
수더븐하다
주무르다(動)按摩
주므르다
주무시다(動)寢
주므시다
지꺼분하다
징두리(名)屋圍下部
징드리
진두리
지저분하다(形)不潔
지저븐하다
품질(名)品質
품즐
하물며(副)況
하믈며
하품(名)欠伸
하픔
후무리다(動)掠取
후므리다
아물거리다(動)不明見
아믈거리다
아주머니(名)叔母、嫂
아즈머니
아자머니
아지머니
아주버니(名)媤叔
아즈버니
아자버니
아지버니
여무지다(形)堅實
여므지다
여울(名)灘
여을
오줌(名)小便
오좀
오즘

【ㅡ을 취함】
가쁘다(形)疲
가뿌다
갸륵하다(形)偉異
갸룩하다
고달프다(形)困憊
고달푸다
고드름(名)氷柱
고두름
고르다(動)調
고루다
고프다(形)飢
고푸다
구름(名)雲
구룸
구쁘다(形)食慾
구뿌다
궁금하다(形)鬱
궁굼하다
그믐(名)晦
그뭄
그만두다(動)停止
구만두다
기쁘다(形)喜
기뿌다
나쁘다(形)惡
나뿌다
늪(名)沼
눞
두드러기(名)疹
두두러기
두드러지다(形)中高
두두러지다
마늘(名)大蒜
마눌

連載野談

# 布袋記 (六) (不許轉載)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숙기소원(二〇)

그 찻두가 이칠이와 가려나갓뒤에 리선전관은 얼큰히 취한 긔운으로 자리에 누어서 전후 일을 생각할새 술긔운으로 마음이 흩틀리는 것보담 그일에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더욱 흥중 생중해젓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리귀는병조판서감이라 말하고 유방의첩은 령의정감이라 말하고 신청원은 분명 친근한 마음으로써 꾸짓는듯한 말투하는것이 모두 심상치 아니한 말이니만큼 주선하는것이 허되지아니할것이뻔한 일이나 오직 답답한것은 어느때 낙착이될것인지 그시긔를 아지못하는것 뿐이다。

그래서 리선전관은 조급한생각이 엄지아니하나 일의 경우되봐이 분명코 랑패는 업슬것을 밋는중 두가지의 생각이그 밋는 마음을 더욱 굿게하얏스니 리귀는 병조판서감으로 보고 유방의 첩은 령의정감으로 본데 대하야 그만큼 잘난사람으로 본시상은 그러케 잘난사람을 그대로 둘리가 업다는생각 또하나는 유방의 첩이 반한 모양이라는 말이 어쩌지업는 가슴에서 풀리지 아니하얏다。

그리하야 리선전관은 유방의 첩이 반햇다는 말을 거듭、거듭 생임진흉하되。

『아아。윤중상의 첩은 천하절색이라는데 내게 반해?。진실로 내게 뜻이잇다면 윤중상을 접어 뚯든지 몰어 뚯든지。울든지 옷든지。무슨수단으로든지。내일을 성사를시키렷다。그런뒤에는 윤중상을 곽 차버리고 내게로 쫏우루 쪼처오렷다。허허。 그지경이 되면 세가지 남처하얼이생기지 안나。첫재는 사나이자식으로써 천하절색이 다릉질해오는것을 쪼처 버릴수가업는일。둘재는 만일 그쪼처오는것을 덥버안는다면 윤중상이 그 혐의로써 나를 원수로삼울것이니 그렇다면 내 전정에 해되는것이 래산가를것。셋재는 윤중상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첩이 달려오는것을 바치버린다면 그것은 사나히 자식으로는 졸한지일뿐아니라 일부한원(一婦含怨)에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니 나를 오직이나 원망하며 그리될다면 무슨일이 될것이잇겟누?。』

하며 리선전관은 유방의 첩이 반혓단 말을 도리혀 걱정꺼리로써 생각하엿다。

리선전관은 자리에 누어서이려케 여러가지 생각을 기피하다가

『오옹 오늘일은 오늘일, 래일일은 래일일, 어제든 일의귓속이 되기는 되는일이니깡。』

하며 자리에서 벌떡이러나 안즈며 압길이 분명 훤하게 터지게 될것을 크게 기뻐하엿다

이때 그찻두는 과연 주안상하나를 양전히 싸거다가 노코 이칠이와 더옹이를 대접하면서

『여보! 무불른형 그동안은마음이 업는것이 아니라 두분른형이 보지는바와 가티 로형네 나리마님의 일로해서 어듸 여가가잇섯소。그런데이제는 먹나리마님의 일이 다되엇기로 한순배하는것이니 지나간일은 허물치 마시고 오늘저녁은 이 범번치못한 상이나마 노코 정담을합시다。』

하며 그 찻두는 잔을 들어 특별히 이칠이부터 권하얏다。

『허허。천만의말슴。내 지금이야 사과의 말슴이 요만은 저거번에 내가 그피가 나는돈을 떼먹는놈은 다리족우리빼를 브러트린단 말슴으로 해서 꾸중도 들엇소이다만은 그말이 퍽 큰형을 지못한 말이 아닐지라도 퍽이나 미안이생각해서요 용서하시요。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그래요 참으로 그돈이 피가 나는 돈이오。그런데 그돈을 만일 떼먹는다면 나는 멧해동안 물밥을 비러먹고 다닐지라도 그놈을 성히 두지아니하려고 생각햇섯소。내가 이때 뵈여도 우리 봉산(鳳山) 고을에서는 우리아버지、우리 할아버지가 대대로 도사령(都使令)을 내노치아니한 집안의 자식이니만큼 나도 남의 눈치、코치를 어지간이 잘채고 또는 힘께도 쓰고 독하기도 남만한놈이요 그때 상전(上典)이 망하는것을 보고 그대로 잇겟소。』

하며 이칠은 그 찻두에게 대하야 전일을 사과하고 여전히 지처자랑까지 하면서 뻡내엿다。

『아냐。그다 이롤말슴이요。』

하며 그찻두는 이칠의 말에구절 구절 탄복하는 양을보이엿다。

그러나 그찻두의 가슴은이처럼 말로하야금 서늘한듯。술맛까지 변하얏다。

이에 그찻두는 불안한 마음으로써 술을 다먹은후

『자!。나리마님께 말슴한것과 가리 일을위해서 나도 자주 못오겟소이다。』

하고 이칠과 더옹을 작별하고 일어섯다。

## 라디오

**十四日(土曜)**

◇午後六時 吹奏樂과코-넷獨奏 一、퍽스렌 二、기러이 三、자장가……介베르트作曲 四、저구흥……金泰哲編曲 五、내故鄕 六、들장미……介베르트作曲 七、白騎兵 八、中東學校校歌 指揮 中東學校音樂部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洪陽明
◇同七時三〇 講演『高麗時代의儒家들』 金日坤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沈淸歌 吳太石
◇同八時三〇 一、도라지타령 二、靑春歌 三、密陽아리랑 四、늴리리야 五、漢江水打鈴 鼓手 池龍九 外
◇午後九時 流行歌 一、벌판(申) 二、異域울밤차(金) 三、쌍쌍회(文) 四、放浪者의노래(申) 五、비젓는뱃머(金) 六、처사초룡(文) 七、설음의打鈴(申、金、文)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라디오・스케취

**十五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내외秘劇』 全三幕中 二三幕 配役 넬…金甲順 디크…張永淑 파-겟터夫人…兪眞淑 쎄닉…任英善 악-되…李良淑 파-겟터…李仁惠 牧僧…安顯以 파-겟터…李根郁 效果…班 指揮 女性俱樂部
◇同六時 滿鮮兒童劇『의지업는애』 마로-原作 鄭英徹 指揮…新興童人會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一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二、羽調 三、界樂 四、編 郭乙
◇同八時 피아노三重奏 曲B플랫트長調作品十一(베-토-벤作曲) 피아노 李…… 빠이올린 洪…… 첼로 金…… 外
◇同八時卅分 杖歌 一、二、執杖歌 三、小春香 四、풋고초
◇同九時 映畵이야기『將軍의죽엄』 李承雨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國으로부터) 新京二重放送開始記念招聘文部劇 哈爾濱道外華樂舞臺로부터中繼-哈爾濱으로부터-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産業ニュース
◇同七時三〇分 재즈
◇同七時五五分 (東)落語
◇同八時 (東)俗曲
◇同九時一〇分 漫才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로부터)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바이올린獨奏
◇同九時時事解說

**十六日(月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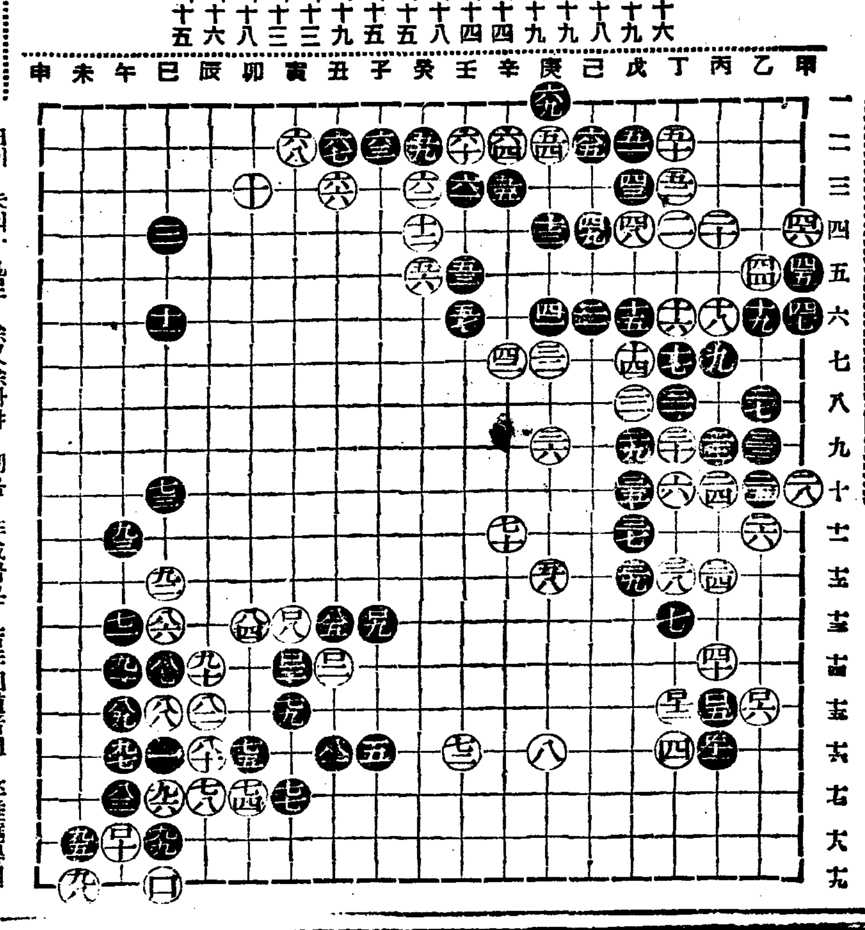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名) 멘돌린五重奏와獨奏 一、루치아의鐘…무니살도리作曲 二、까봇트…무니에作曲 三、獨奏(無伴奏) 세레나-라…中野二郎作曲 四、피리소리…아마듸作曲 五、侯爵夫人의邸宅에서…메치가-포作曲 第一맨돌린 中野二郎 新美政一 第二맨돌린 鵜都金七 만돌라 水野劍 만도・첼로 伊藤正二 끼라 山田興一郎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暖房裝置이야기』 朴吉龍
◇同三時一〇分 (名) 敎師의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어린이의遊戲…宋一九編曲 二、愉快한牛乳配達夫…同 三、꿈에서잡힌人形…오레스레作曲 四、沙漠의隊商…宋一九編曲 五、그리운켄터키-의집…포스터-作曲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許然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米穀統制에對하야 總督府事務官 姜元秀
◇同八時 성주풀이 外 吳太石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二、三、紀도도리風流 鷄琴…… 大琴…… 細笛 杖鼓 金、李、金、廉 吳、全
◇同九時 野談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通俗講話
◇午後〇時五分(名)만도링五重奏
◇同二時(東) 家庭講座
◇同六時 管絃樂 멘돌린五重奏 과獨奏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箏曲
◇同八時三〇分(東) 歌舞伎物語
◇同八時五〇分(東)

##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蔡極文
黑先 權秉郁



| | |
|---|---|
| 九七 | 午의十六 |
| 九八 | 未의十九 |
| 九九 | 巳의十八 |
| 一〇〇 | 巳의十九 |
| 一〇一 | 午의十九 |
| 一〇二 | 丑의十四 |
| 一〇三 | 寅의十四 |
| 一〇四 | 午의十八 |
| 一〇五 | 丙의十五 |
| 一〇六 | 乙의十五 |
| 一〇七 | 午의十九 |
| 一〇八 | 寅의十三 |
| 一〇九 | 子의十三 |
| 一一〇 | 午의十八 |
| 一一一 | 丙의十六 |
| 一一二 | 丁의十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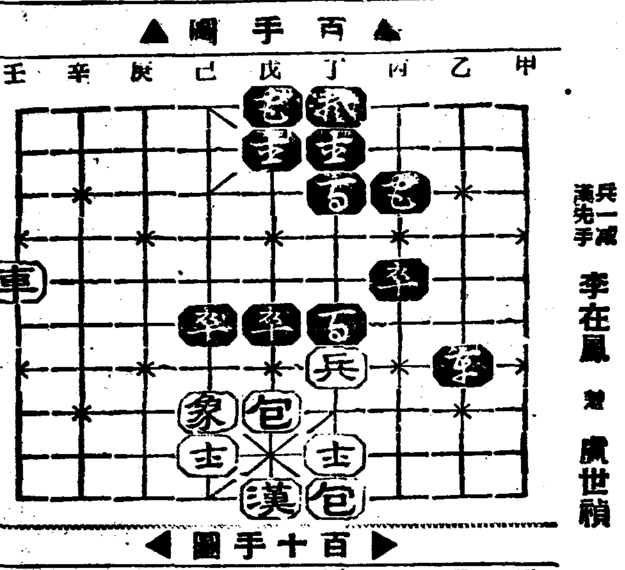
觀戰者談

白이 未의十九로 除又除하야 刧을 作成함은 若非知道者면 卒難曉得일듯 白이 自盤不聰으로 臨時用權이라도 高手段이 아니믄아니다

##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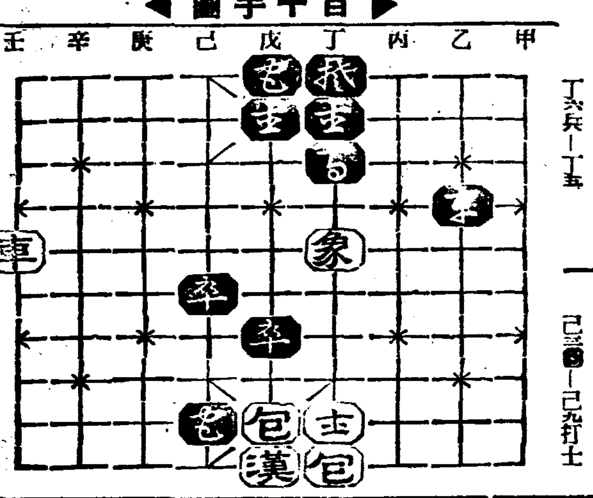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盧世禎

▲百丙手圖▲



丁七兵-丁六打馬
戊六卒-戊七
戊六包-戊四
乙七車-乙三
丁六兵-丁五

◀百十手圖▶



丙五卒-丁五打兵
己六象-丁五打卒
丙三車-己三
戊四包-戊九
己三車-己九打士


11-11A

CHUJOTO

# 病理에 適當한 原因療法

婦人藥의權威

# 中(중) 將(장) 湯(탕)

複雜微妙한 婦人病의治療에對하야는 우리가늘보는 一時的手當으로는『밥에파리를쫏는』셈이다 여기에는 病根本을作用하는綜合効果의 原因療法이必要하게되엿다

오랜햇수를지나 權威잇는專門家諸氏가만흔經驗과 苦心努力을싸코進步改良하야 임이臨床的으로도 優秀한것이認定된和漢藥의綜合効果의 中將湯은婦人疾患에 適藥이라고하여섯다

本劑는오래고도새로운 生命을가진現代에 그眞價를謳歌하여짐에는實際的인 藥効가말하고엿다

主効

腰痛厥冷、眩氣、逆上頭痛、月經不順下腹疼痛、히스데리ー神經衰弱、子宮病腰氣、肩臂感、氣癊前産後、浮腫惡阻

가을에서겨울에

# 厥冷에 注意

亢進하는婦人病

가을이 지터갈수록라慢夕은 急激히차워짐으로 婦人病잇는분들은조고마한不注意로 厥冷이原因이되여病이더하야 지고、또健康한婦人이라도厥冷이原因이되여 婦人病에걸리기쉬워放心치못할季節이다

頭痛眩氣가 낫다든지 月經不順이나、또月經時에 下腹部압흐든가、內股와 허리가 잘아다리는것처럼압흐고、惡寒이잇서허리、다리가차고、肩背痛이잇고、腰氣가나리고、食慾이주러서、漸漸身體가衰弱하야진다는 症狀이낫타나면確實히婦人病에걸닌 證據라고생각하면틀림업다。

이러한症狀이되면 술쉬업는일에도 感情이이러나고 所謂히스테리하게되고 美顔도蒼白하야지고 身體는날노날노憔悴하야 밝은家庭에불이꺼진것처럼 뜻아닌悲劇이이러나는例는決코滋味업는일이다

◇……治療는速히

이것을고치에는 中將湯을服用함이 一般으로 推奬되고잇다 그것은現代醫學界의權見을로모分泌를整調식혀血行을旺盛케하고 病菌을捕殺하는 白血球를增殖식혀身體細胞機能을賦活하야 病根本에作用하는 原因療法藥인바이다 또 中將湯을 愛用하는분들은體內에서 溫氣를感하게되고、두려운厥冷을막음과同時에血色도조와지고 實로健康과美容이새로워진다 또는 絶對로副作用이업슴이特長이따婦人疾患에는 一時的의手當이아니고病理에適當한綜合効果의原因療法을推奬한다

本舖

株式會社 津村順天堂

(定價)
試用分 ¥ .20
3日分 ¥ .50
7日分 ¥ 1.00
15日分 ¥ 2.00
23日分 ¥ 3.00
40日分 ¥ 5.00
85日分 ¥ 10.00

# 回收도이한때라고 債權者跋扈滋甚
## 咸南道內의支拂命令五千件
## 十月中에만六百件

【咸興】추수기가되면 해마다보는현상이지만은 금번도농작이 례년에비하야 그다지 흉작이안이라는 예상을하고 전수년간밀리구채(舊債)를일시에 회수(回收)하려고 채권자들의독촉이 성화가튼배잇서 농국에 적지안흔불안을주고잇다

함흥법원의시월말현재의 지불명령건수의트계를보면 본청과세지청을합하야 오천오백사십건의다수로서 일개월평균 오백여건의다수에달한다

그리고 십월한달동안에만 륙백팔건의다수에 달하야 매일평균이십건의다수다 각청별로보면 다음과갓다

咸興 一九八〇 北靑 一三六三
元山 一〇九四 江陵 一〇八三

## 陜川의棉作狀況 五割減의凶作 但時勢만은好調

【陜川】경남합천군의 지난해륙지면(陸地棉)의 총생산고는 십로 합계 그중 공동판매된것이 팔십삼만팔천오백구근이며 그가격이 십사만이천일백사십오원삼십삼전이어서 농가경제에 적지안흔도움이되엿섯는바 금번은 흉혜이도 풍수해의 피해로 작년에비하야 오할의 수확예상으로 금삼일부터 합천군농회의 알선으로 공동판매가 시작되엿는데 매근가격은 다음과갓다한다

一等 十九錢
二等 十八錢
三等 十六錢三厘

# 災民救濟策으로 林產道開設熱望
## 三萬災民의死活問題라하야 關係當局에陳情準備

【淳昌】전북순창지방은 십칠한 재해로인하여 전군의농작물피해가 무려백만원을돌파하고 삼만여명의리재농민이 생도를일허바리고 긔아선상에방황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와가티 그현상은 그야말로문자그대로써 형언할수도업다하며 풍게각당국에서는 재해민을구제키위하여 각방면으로주도한구제책을 수립중이라고하나 자소위홀로점설에불과하고 일반재민의신산한고통은 날이갈수록 더한층노파갈뿐이라고한다 이에대하여일반재민의구제사업중 일방로서 시급히요망한바잇스니 순창지방에서도 전멸상태가되여잇는 쌍치、복흥、구림、동계(雙置、福興、龜林、東溪)등사개면내에 좌긔와가티 림산업도로(林產業道路)를시급히개설케하여서 수만재민을 호구제케하라함이데 원래 전긔사개면에는 순창지방유일의 림산업지대로서 농가부업상 막대한재원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한가지교통긔관에대한 불편을늣기게되여 지금것 개발치못하고 잇섯는데 금번피해를당하여서는 더한층도로개설을 요망한바라하며 해면당국과 면민유지측에서는 관계도군(道郡)당당국에 진정을하려고 제반준비에 노력중이라고한다

一、淳昌郡雙置面金坪里로부터井邑郡內藏面出越時間에 時急히 林產業道路를 開設케한後 林產物의 運搬과 福興雙置兩面間의 連絡을 敏速하게하여 一般災民의 生業을促進케하고此에市한 工業勞貸으로써 救濟事業이되게할事

二、淳昌郡龜林面月亭里로부터同郡仁溪面道龍里間의 郡外道路를二等道로 昇格시켜서 此에 對한 約四千餘圓의 勞賃과雲南里第二區로부터 同郡雙置面界인시티싸시時까지 林產業道路를 擴張又는 新設하여서前記 同樣으로 救濟事業이되게할事

▲十九日 館後里 場所盤龍學校
▲二十日 慶上里 場所未定
▲二十一日 上需里 場所美武館
▲二十五日 西城里 場所倉光山禮拜堂

## 嶺南體育會主催 全朝鮮蹴球戰 二十一日부터大邱에서

【大邱】제팔회전조선축구대회는 령남체육회(嶺南體育會)주최로오는 이십일、이、삼일 삼일간대구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다는바 소변、중학、일반의삼부로에나노아 우승전을 결행할터로 이에 회외 인기는 벌서부터 비상하며 참가신청기한은 오는십팔일까지라하며 신청장소는 동성정(東城町)삼정목 대구 운동구점(大邱運動具店)이라고한다

## 「ㄱ」字모르는文盲 郡民의約六割

【通川】문맹퇴치의소리는 날로 노파가는반면에 의연히 암흑세계에서 헤매이는인간이 만타 금번조사한바에의하면 통천군내인구오만여명중 전혀「ㄱ」자도모르는사람이 약이만명가량이라고하는바 빈약한통천교육계의 리면상을 여실히나타내고잇다

## 正租出廻稀少로 各精米所閑散

【洪城】충남홍성지방에는 한재와 풍수해등으로 인하야흉작을 아니라 의외로 벼가삭고 또한 성숙이 잘못되여서 상상이상의 대감수되여 소출고가심할정도에 미치게되는데 세농민들은 수확고를 고대하여 겨우 호구하여 생명만을 겨우 보전하여갈만큼 먹고살어갈 양식을 제하고 겨우한두섬식이라도 팔어서 성화가튼 채귀들의 입을 막고자 날로 괴로워하는바 수확대감수를 당한 그들은 먹고살어갈것조차 태반부족으로과동해이 막연하므로 하늘만바라보고 탄식만할따름이라는데 이것으로말미아마 미곡출회가 의연부진되여잇는현상인바 군내각미곡업자의창고와 정미소에는 미곡의출주로 한번에게 한시고이이즈음 풍주는 귀해 아조한산하여서 영업자들은 파리를날리고잇다한다

# 災地居昌郡下에 殺人强盜出現
## 行商女人을絞殺現金强奪潛跡 居昌署員徹夜猛搜索

【居昌】생각만 하여도 끔직한 지난 풍수해로말미암아 대재지 경남거창지방의 인심은 극히소란하든중 지난구일오후팔시경에 금천동공동묘지(金川洞共同墓地)부근에서 행상녀인을 교살(絞殺)한 살인강도(殺人强盜) 사건이 발생되엿다 이에 그자세한바를듯건대 전북남원군주생면지당리(全北南原郡周生面池塘里)진영하(晋令夏)의 처 양거북(楊巨北)은 지난 팔일에 장보진상옥(晋畔鉄)과가티 도보행상(徒步行商)하기위하야 거창읍가게되엿는데 전긔진상옥은 구일오전칠시에 고향인남원으로도라가고 피해자양거북은 시가이원가량되는 행상품건을가지고 금천동공동묘지 뒷길노지내다가 불행히 강도를맛나 살해를 당한 모양인데 이급보를 바든 소관 거창서에서는 각처에 수배를하고 현장에달려가 시체를 해부검증 조사를하엿는데 륵골(肋骨)이불어지고 다오른(수건)로목을잘라 죽엿는데 전긔피해자가 머리에 이고다니며 행상하든 도부짐은 업서지고 돈주머니는 끈을풀어 근방에버려두엇슴으로 횡전(橫

# 警告事件이百出
## 平壤府當局者에 委員들府會서痛擊

【平壤】평양부회석상에서 주간홍(朱龄鉉)김정호(金貞浩)한근조(韓根祖)등각의원은 소천(小泉) 평양박물관장이 국보금관(金冠)을 귀생(妓生)에게씨우고 사진을 촬영한무엇한행동을 드린공격하고 다음달회까지에 진상을 보고하는동시에 처치를하라고강조하여 회장안공긔를 긴장식혓다함은 작보한바잇섯거니와 다시 주간홍의원은 평양부세일람(府勢一覽)의표지(表紙)에 긔생을그리고 내부에사진을 게재하고 또긔생학교(妓生學校)니 무엇이니하여 선동을하고잇다 또김정호의원은 파장관의 인물들을위지하여 하급교원에 일으기까지 부민을때하는 태도가건방진것과 부민의 초대를바다 료정으로빈번히 도라다니는것은 장래 부정사건을 만들전제(前提)도되므로 주의하라고 경고하엿다 어쨋든 도로포장 접대 풍괴 수도 전긔 전차 폐쇄등 각방면으로 온당치못한 행동이 평양부청을 중심으로 만타하여부민의 비난이만흔것만은 사실이어서 당국자는 일고삼성할필요가업지안타고 각방면으로 경고를햇다

## 本報支局後援 梨專演奏大會 十六日新京에서

【新京】고국에 정서를실고 애련한멜노듸로 우리재만동포를 하루밤이라도 위안하기위하야 오는십팔일 당지에서 연주키로되엿든바 로정의사정으로 인하야 오는십륙일오후칠시에 시내만철사원구락부(滿鐵社員俱樂部)에서 하기로 일자와장소를 변경하엿다는데 벌서만도의인긔는 그날의대성황을 예상하고 잇다는바 입장료는 백권이일원 청권이오십전이라한다

### 地方人事

▲遊佐憲治氏(日本齒科醫學士)開業人事次本報金海支局來訪

# 平北道水稻豫想高 百五十九萬餘石
## 一回豫想보다九萬石增

【新義州】평북도금년의 수도(水稻)제이회수확예상고는 제일회예상 일백오십만칠천팔백 이십팔석보다 증가되여 일백오십구만 삼천오백 칠십이석에 달하는바 작년에비하야보면 사십구만석의 대증수로 이를각군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갓다한다

▲新義州 一、六七〇石
▲義州 一二一、〇九七
▲龜城 六三、七一三
▲泰川 六二、五六四
▲雲山 二六、五五九
▲熙川 九、八四三
▲寧邊 六四、六九〇
▲博川 一六九、三三四
▲定州 三七五、二一六
▲宣川 一二八、二六三
▲鐵山 一〇一、〇三三
▲龍川 三三〇、二六八
▲朔州 一三、二七九
▲昌城 一二、二七九
▲碧潼 五、五四六
▲楚山 一九、六九九
▲渭原 一五、六五九
▲江界 五〇、五七〇
▲慈城 二四、二三六
▲厚昌 七、三八九
▲計 一、五九三、五七二

## 平壤에染病猖獗 豫防注射實施

【平壤】평양부내의 장질부사는 시월말현재로 벌서작년일년의발생수를 돌파하엿고 현재에도신환자가발생하고잇스므로 세명이상의환자가 발생한정과리전주민에게 예방주사를실시하기로되엿는데 일할과실시장소는 다음과갓다

▲十六日 竹園町 本町 場所未定
▲十七日 八千代町 場所미정 幼稚園
▲十八日 壽町 場所未定

# 日銀金價引上後 金密輸거의斷絶
## 六朔間에不過二貫餘

【新義州】금년오월륙일 정부의 금가(金價)인상후에는 금괴(金塊)밀수가 격감하야 국경경제게에 적지안흔충동을이르켯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에도 약간의 금괴밀수를보이여왓는데 최근륙개월간의 금괴밀수수량을보면 다음과갓다한다

▲五月中二三四匁五〇▲六月中一、七九二匁▲七月中無▲八月中八五匁▲九月中無▲十月中四九匁

# 催冬! 各地의初雪

……新義州……십이일오후부터 검은구름이모여들어 떼는곤 착비가 나리기시작하더니 동 네시부터 동남풍이 북풍(北風)으로 돌변하면서 눈(雪)으로변하야 함박눈이 나리기시작하야 숫시간에 국경일대를 은세계화사가어 느저진겨울을 재촉하엿다

……高原……금변은 구월말입동(立冬)이고 례년에비하야 일개월여의차가잇게우리고원지방에는 긔온이떠러저 매일최저온도 령하삼、사도를오르내리고잇드니 지난 십일일 오후아홉시부터 급작이 폭풍우가 나리다가 다시눈으로변하야 산천에 백설이분분하여 겨울소식을 각일각으로 재촉하고잇다한다

……泰川……평북태천지방에는 수일전부터 모진치위가 습래하드니 드디어 지난 십이일오후 세시경부터는 백설이 떠붓기시작하야 그날밤을한시경까지 약세치가량이나 싸어 산간에는 교통까지 두절되여일반의 고통이 막심하다한다

……妙香山……묘향산은 령하(零下)삼사도를 오르내리드니 지난십이일저녁부터 눈이나리기시작하야 일촌이상이나오고 어름도두둑두게나어러서 치위가대단히 심하여 거울에살준비를하노라고분망중이다

……寧邊……지난십이일오후칠시부터 녕변지방에는 백설이 약이척가량나려 산과들에는 은세계를 이루워 초설(初雪)의 진풍을일우엇다

## 遂安地方에는 杜鵑花가滿發

【遂安】수안지방에는 금번도 농사들의 풍작을 일후워 농민들에게 기쁨을 주엇는데 또 입동(立冬)이 지난 오늘날에도 산봉오리마다 진달래(杜鵑花)꼿어 만발하여 초동들은 꺽거가지고 놀며 농민들은 명년에도 또풍년이지겟다고 긔기대한다고한다

## 災地通川一帶에 蔬菜조차凶作

【通川】지난대수재로 인하야농작물의피해가 만엇슴은 말할도 업지만 그뿐아니라 군내에는채소까지전멸되여 배차한폭이 무한개 어떠붙길이 업다한다 눈이오고 어름이어렵건만 김장독들은 텅비인채로 뒹굴에데굴데굴구는양은 수재에울고잇는 이재민들의 눈물을 더욱자아내고 잇다한다

# 八十餘指導部落의 水害額十二萬圓

【陜川】농산어촌의 자력갱생운동에의한 갱생지도부락(更生指導部落)이 경남합천군(陜川郡)에도 팔십일개소나 되야 날로그 지도에 전력을 경주하야 오든바 지난번의 전고미문의 폭풍우로 인하야 입은피해액이、 농작물에만 육만이천사백칠십원、
경작지 피해액이 오만삼천칠백이십삼원、
가옥피해액이 사천이백륙십삼원、
가축피해액이 이백여원、
합계 십이만륙백오십륙원의 거액에달한다고한다。

# 愛慾의彼岸 【150】

李光洙 作 金康穆 畵

허련은 오빠의 횡설수설하는 소리 속에 피눈물이 서린것을 깨닷고는 오빠의 숨내나는 도리움을 피하라고도 아니하고 엄숙하게 오빠를 바라보앗다.

「허련아」

하고 종호는 빼여면 다리를 가드려따려서 참선하는 사람 모양으로 똑 바로 안즈며,

「왜 아버지가 밉지안케 되엇는고 하니 말이다. 장안안 아버지들의 행세를 두루알아보니 대개가 마찬가지려라이다. 장안에―와 장안만이냐, 내가 난봉 오변에 조선천지에 대처치고 안 가 본데가 업고, 간데마다 날 가튼 부랑자들과 안사고인데가 업지만 아버지란 대개 그런것이오 잘르럽 대개 그런것이오, 또 점잔흔 서사람 대개 그런것임을 발견하엿단말이다. 신사만 그런가, 숙녀들도 그럴는지 모르지만 낫 숙녀남비 행세에는 흥미가 업스니 조사를 아니햇단말야。그러고보면 우리아버지 김장르를 그러케 나물할것도 업단말이다。그저 예사조선 신사라말야。그만하면 훌륭한 신사다。첫재로 돈이 잇스니까、둘재로는 용하게 오십이넘도록 꾸며왓스니까、하하하하 안 그러냐 허련아。

「그로보면 세상에 공연들여서 결과업는법은 업단말이다。나도 오변 세월에 돈만원이나 때려부시고 이만하면 큰 소득이어든。아버지를 미워하지안케되엇스니까。아버지가 이런줄을 아시기만 하면、어 내 아들 긔특하다、돈 주께 더 난봉을피워라。내가 천하에 으뜸가는성인이 되어보이도록만 난봉을피워다고、하고 되려 내게 간청을 하실것이다。하하하하。허련아 좀 웃어!

사실 그럴른지 모르단말이다 내가 세상 신사숙녀님네 일을 좀더 자세히 조사하는 날、면필경은、아아 우리아버지는 과연 성인이시다、이 세상에 두분도 업는 성인이시다 이러케 생각하게 될는지도 모르거든」

「아니 오빠두 웨 그러케 세상을 거꾸로만 보시우? 웨인생의 암흑면만 그러케 잘 보시우? 그런들 세상이 다 그러키야 하겟수? 그래두 올흔 사람도 잇겟지」

「암 네말이 옳지。올흔 사람도 더러잇길래 세상이 아직붓할것을 느꼇다。

「허련아。인제 나는 세상에서 볼것은 다 보앗단 말이다。인제 더 볼것은 업거든。아버지 망하는것도 보고 집안 망하는것도 보고、또 세상이 망할 도를 다는것도 보고、인제 더 볼것이 무엇이냐。인재는 저 죽는것을 보는것이 아마마지막 구경일거야。피。참 세상도 시언치안흔 세상이야。홍、잘 보앗고말고。」

「오빠。왜 그러케 말씀하시우? 오빠가돌아가시면 그야말로 우리 집은 망해버리게。」

「홍。내가 살면 별수잇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깐으로 내가산대자 낫살 먹으면 또 아버지꼴이 되고말것이어든。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될는지모르지、아버지처럼 돈벌줄도 모르고의식할줄도 모르는테다가 술과계집은 벌서 아버지보다 우등이니깡 참 아버지가 요새 매일 장취라지?」

「그러타우」

「잘한다。인제 철저하게 드러가는 판이로구나、허!」

「오빠 정말 오빠가 하시래만 들면 아버지를 건저드릴수가잇지안켓수?」

「아버지를 건저!」

「으 응」

하고 허련은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

허가것지。그러치만 안되는집연 살만한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윤동의 세상이 꽉 그런가보다。안 그러냐、감히살기는 이가 죽어、온주가튼이가 죽어 홍。인제 그래도 녀허구 나허구가 좀 깨끗하니깐으로 도헐마 못 살꺼다。」

「그런데 허련아」

「네?」

허련은 강피 온주를 생각하고 슬펏다。

「너 죽을생각 해본일 업니?」

「네?」

허련은 종호의 하도 뜻하지 아니한 말에 깜짝 놀래엇다。

「아니 그만두어라」

종호는 지금 한 말을 거두어들이는드시 시침이를 떼다。

「오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우? 왜 죽는 말씀을 하시우?」

허련은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李光洙著 李舜臣 (三版出來)豪華版壹圓五拾錢
其間品切中이在文殺至中에忽然三版出來!
高級러부紙印刷 洋裝美術表裝箱入 送料十八錢

朝鮮文人書簡集
苦待中出來! 出來! 執筆者(가나다順)
姜敬愛、金南天、金八峰、柳光烈、李箕永、李無影、李壽昌、
李源朝、李洽、林和、朴世永、朴勝極、朴芽枝、朴英熙、
宋奉瑀、宋東洙、宋影、嚴興燮、尹白南、尹基鼎、張赫宙、
丁來東、趙碧岩、崔貞熙、崔石、咸大勳、韓雪野、韓仁澤、韓曉、玄鎭健、洪曉民
附풀키、꾀레ー、돌스토엡스키ー譯書簡集읽으라! 보라! 讀者들놀래게할破天荒의 書簡集이다。참된人生의속삭임이잇고、敎訓이잇고、熱情이잇고、憧憬이잇다。
高級紙印刷 四六版 美裝 定價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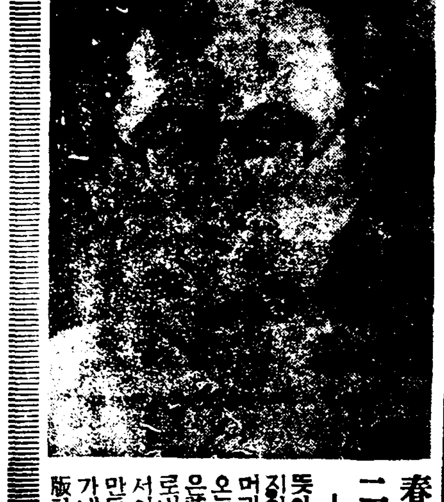
金文字箱入 高級紙印刷、洋裝
各上、下各 壹圓貳拾錢
春園李光洙全集 그女子의一生
아東南風된다水되고、한숨은모에눈물은흘러漢江 애닯은金鳳의이야기史! 애닯은佳人薄命哀讀者의눈물을짜내最大悲劇의小說! 눈물의

젊은그들 金東仁作
자기의 約婚者를지척에 두고도 그가누구인지 몰나 서약을저버리는 러애타하는 男裝의美少女와 그美少女의 約婚者이며 또한 當代無雙의 名劍客으로서의 한개快男兒와 名妓연연이의 세사람을 主人公으로 近代朝鮮의 偉觀大院君을 傍系主人公으로 이悲劇에 天下의讀者는얼마나 만흔눈물을 흘리엇느냐? 史上人物을 人格化한 最初의 小說로서의 이한篇의 갓는地位는크다。젊은이여! 읽으라! 「젊은그들」을!
洋裝美本箱入 八百五十頁 定價 一圓八十錢 送料 二十四錢

平和와自由 壹圓
徐載弼·李承晚·安昌浩·呂運亨·安在鴻·鄭寅普·鎭禹等五十餘氏의政治·經濟·社會·文化에對한代表的論文集世에中으로一의歡呼裏 第五版發賣 上等紙印刷洋裝金文字箱入

美文 詩的 最新文學書簡集 四六版 美本 定價 八十錢
黑夜의별갓치 고흔文學的美文、月夜白江에 흘러 가는 紅桃花갓치 애련하고도서늘한 筆致! 비단갓치부드럽고고흔 詩的美文! 참된 人生의 幸福을 늣기게한다。

人生의香氣 ¥1.50
春園先生文壇生活二十年 記念作品
—序文의一節—
뜻아니한 文筆生活을 한지이제二十餘年、어느새에 머리에 센터럭이 보이게된오늘、나는그동안에내가지은詩歌、隨筆中에서내스스로버리기아깝다는것을추려만들어出版하기로한다。내가내손으로내글을모아서出版하기는이것이처음이다。


遊覽은金剛山으로! 書籍注文은三文社로! 圖書月報進呈! 곳請求하시옵 ◇
發行所 京城寬勳町一二一 振替京城九七五六番
總發賣所 萬種書籍都散賣業
三文社

黑頭巾 尹白南作
일즉이 新聞紙上에 發表되야 百萬讀者의 人氣를 集中식히고、이것이 꿋나자 各方面으로부터 單行本의 出版을 渴望하든 高級歷史小說「黑頭巾」은出來! 神出鬼沒하는 黑頭巾의活動! 暗中飛躍하는 黑頭巾의策略! 李靑田畵伯의 揷畵多數! 美麗洋裝金文字箱入五百五十頁定價一圓五十錢送料十八錢
全鮮有名書店에서一齊發賣! 品切時에는本書店으로即接注文하시옵!

## 經濟解說 中小商工金融

### 商工金庫와朝鮮事情 ② 李[illegible]

日本內地에잇서서 中小商工業金融에對한 國家施設은 昭和七年以降의 時局匡救의議會에서 이것이 [illegible] 되어 그救濟實行이不作하얏섯는데 本商工에 一時的救濟 [illegible] 商工組合金庫法이 無難히 臨時議會를通過하얏는데 이中央金庫에 큰期待를가지지는 안는모양이나 何如間 中小商工金融實行에 入한것이만큼 意義가잇는바 商工組合中央金庫라는것은 商工組合中央金庫法에 依하야 設立되는것으로 産業組合中央金庫에對立하는 機關으로서 商業組合 工業組合及輸出組合의金融에 關한 中樞機關이되는것으로 그內容은

1、有限責任의法人組織
2、出資金一千萬圓
가、政府五百萬圓…初年度二百萬圓 殘額은 三個年間에出資
나、商、工、輸出各組合及그聯合會 五百萬圓…初年度百萬圓、殘四百萬圓을 十年間에出資
3、政府出資에 對하야 十五個年間 配當免除
4、債券發行 拂込資本金十倍를 限하야 商工債券發行
5、業務 所屬組合及聯合會에對한 長期貸付、手形割引、爲替、同組合及非營利法人으로부터의 預金受入
6、組合에對한金融

가、組合의共同施設、共同仕入等共同經濟事業을 擴充하고組合員의 企業經營의改善、合理化를圖하는 所要共同資金의融通
나、組合이 組合員에 對하야그營業에 必要한資金을轉貸키爲하야 要하는 資金供給

以上에 依하야 中小商工業金融을 改善하자는것인데 後者의轉貸資金供給이大部分일것으로 組合員은 組合으로부터의 轉貸에依한 間接的融資을 바들것인바 아직開業은안되엇지만 漸次活動케될것이며 이것以外에도 日本內地에는

A、獨立中小商工銀行案
B、公營特殊庶民銀行、同好者銀行案
C、公營中小商工業金庫及小口金融會社案
D、金融機關擴張에關한것等의 金融保證會社와同保證組合案
E、債權保險制度

等의信用保險을 [illegible]
F、動産擔保制度
G、仕上信用制度
H、實業金融引用

等의 擴保繼續에關한施設에對한 研究가 進行되고잇다한다

×

朝鮮의中小商工業은 먼저말한것과가티 朝鮮人의大工業、大商業이란 것이거의 업고 모다中에서 제일의것이거의 업는데 其中小商工이라할수잇는데 其한 大規模商業者들로부터 [illegible] 百萬圓以上의 [illegible] 商工에 [illegible] 서울 京城大路에 店舖를내인小商工業者들은 高利인 月收至於二、四十圓의 日收를쓰는者까지 相當히만흔터이니寒心한일이라겟다。膨脹되어가는大京城바람에 눌어가느니 가개(?)이 [illegible] 一

×

第一 [illegible] 對한 [illegible] 統計는 [illegible] 라 無 [illegible] 이어도 相當히 適當한 [illegible] 其一에어서 [illegible]

(未完)

## 稻作은風水害로 空殼만크고品質不良

### 三百八十斤가저야玄米一石調製 産地에서精白傾向

今年의 朝鮮稻作은 風水害로因하야 空殼이 多量에나니아니라 米質이 또한 不良하야 例年에 正租 三百五十斤을 가지고 玄米一石을 製造하엿다하면 今年은 三百八十斤이 아니고는 玄米一石을 製造할수업다는 産地農家의 實驗談이 多하다고 한다。今年의新正租는 一般으로品質이不良하야 奧地에서는 이것을玄米로調製하야 受檢하기를避하고奧地에서 直時이것을白米로精製하는傾向이濃厚하야 白米의過剩을招來케되리라고 念慮된다한다

## 自治管理法發動?不要?

一、玄米産地別檢查制度에關하야 其標準決定件
二、檢查期間經過穀物의 再檢查는 七月一日로부터 實施하고 大豆의 再檢查는 撤廢키를當局에要望하는件(丸ナ協會提出)
四、籾摺取締에對하야 阪神元山西湖津間을 十五日間을 定한것을 本船到着後四日間으로 爲替
五、本年産米는 品質不良으로商取引上影響이 憂慮가잇슴으로 그對策如何

當業者農林局으로부터 諮問이잇슨 第一次統制組合設立資格問題로附議하얏는데 丸ナ協會는 一萬石 角ノ는三千石을 主張하고 잇스나 大體五千石으로 意見一致될듯하다

## 朝鮮銀行의 北中進出

### 明年初에着手

朝銀에서는 北中進出에關하야 諸般調査를進行코잇는데目下懸案中인 滿洲某銀行設立問題가一段落으로서 陣容을刷新하고 明年初에北中進出에着手키로되엇다 먼저北平支店의新設을 第一로 旣存支店인天津 靑島 上海의充實을圖할方針이바 右에對하야 橫瀨理事는如左히말하얏다

當行이 滿洲事業의分離를行함은北進日本의 必然에貢한重要使命을버리고 朝鮮內에 籠城코저하는것은 斷然아니다 보다더 以上의 使命을 遂行할意向에 出한것으로 目下首腦部間에 北支에對한 硏究를進行코잇다

## 需給推算에疑義 過剩米는百萬石

### 朝鮮側은不必要觀測

第二回米作豫想收穫高發表後의 米穀自治管理案發動如何에對하야 朝鮮側의 觀測은 發動의 必要가업스리라하야 左의事由를 擧하고잇다 卽

一、政府는 十一年度米의 需給推算을行함에際하야 朝鮮으로부터 八百萬石、臺灣으로부터 五百萬石의 移入을보고잇스나 過去의 實績으로보면 朝鮮으로부터는 六百八十萬石、臺灣으로서는 四百六十萬石가량 不過하야 너무外地로부터의 移入을 過大視한것
一、需給推算의 需要部에잇서 無理한 越高를 日本內地에서는九百萬石으로보고잇스나民間五百萬石政府米五百萬石計一千萬石으로볼것을 政府는너무 이것을적게보고잇는것
一、如斯하야 政府는 過剩米三百九十二萬七千石으로보고잇스나 右와如한事情으로보면 實際의 過剩米는 百萬石未滿일것

要컨대 右와如한 事情으로보면 自治法 發動을必要로하지 안코 가령發動되드래도 發動數量은 百萬石乃至二百萬石에 止하리라한다

## 漢銀、商銀 增資要望

今年下半期의 銀行業績은 繁忙을 비롯하야 事業金融의 繁忙을 비롯하야 預金貸出이 모다 朝鮮內經濟의 規模擴大를 反映하는 堅實한 步調로서 一面各行共히 經費節減、經營의 合理化가 徹底하고 更히 不良貸付의 整理가 過去 數期間에 거의 終了하얏슴으로 下期自體로서보면 上期에 잇서서 依然 好調維持의 狀況이다。從來 漢銀、商銀과如함은 再次 增配要望이 增配되는 形勢이라한다 그러나 農産凶作에 依한 相當한 影響이 明年에 豫想되므로 普通銀行의 增配는 依然困難한 形勢이든듯하다한다

## 年內發動은困難

### 價格條件으로보아

### 米價暴落可能性薄弱

今米穀年度는 大槪 四百萬石의 過剩米를 算出한것을 그대로잇는다면 數量的으로는 自治管理法發動의 條件을具備한다 것스나 一年繰越의 凶作의 影響을 바더서 新米穀期에 드러가서도 米價는 依然高價를 維持하야 十一日의 深川正米標準價中 米는 二十九圓七十錢으로 最低米價의 一割上値인 二十七圓二十八錢을 훨신 上廻하고 잇서서 價格的으로는 自治管理法 發動의 餘地는업다하겟다 公定價格은 例年과 가티 十二月中旬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될터인데 今年의 物價參酌價와 大體昨年보다 一圓가량 노프나 他面多收穫으로因하야 生産費의 割低로 最低米價의 引上은 期待할수업다 將來의 米價維持는 勿論警察를 許하지안코나 米穀事情에 特別한 變動을 生하지안코限米價暴落의 可能性은薄弱하며 結局治管理法을 發動하기는 困難하게 지안흘가한다

## 必要업는情勢! 政府意向은白紙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에對하야는 政府의意向은 全혀白紙이나 다만今日에 [illegible]

## 朝郵와商船이聯繫

### 朝鮮航路를支配

### 明年下期에는實現

朝郵와 大阪商船은 緊密한連絡을 取하야 明年下期以降實力의 合致로서 朝鮮航路의經營에乘出할 計劃이 進行되고잇서 總督府도 積極的으로 後援하고잇슴으로 이結果는 크게 注目된다한다 卽 朝郵의 增資에 伴한 新造船計劃은 明年十一月까지에 完成되는데 會社로서는 이에依하야 北朝鮮、西朝鮮의 幹線航路를 直通定期 航海로서 明年下期부터 配船하기로되엇다 大阪商船은 朝鮮航路에는 그리 充實을 行하고 이와 呼應하야 從前 朝鮮航路에는 大阪商船도北鮮航路에는 明年부터 一隻을 增配하야 三千噸級 社船 四隻을 配船하고 仁川航路에도 目下新造中인 四千噸級 社船四隻을 直通定期 航海로서 明年下期부터 配船하기로되엇다 大阪商船과 朝鮮郵船間에는 通商條約에 出席키 爲하야 村田社長의來京을 機會로 郵商協定이 成立되엇고 兩社의 提携에依한 配船이잇스리라한다

## 穀聯幹事會

穀物聯合會에서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 代表幹事會를開催하고 總督府로부터 瀨戶商工課長、殖銀의 [illegible] 理事 [illegible] 列席、各協會로부터 名出席、左記議案을 審議하얏다
一、社團法人定款에關한件

## 全朝鮮各銀行 預金貸出膨脹

京城銀行集會所調查=十月末의全朝鮮의銀行預金貸出額은預金合計三億八千四百二十五萬八千圓 貸出總計 七億六千百二十萬二千圓으로서 預金은前月末에比하야 八百八十五萬圓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千二百三十二萬圓이 各增加하고 貸出도 前月末에比하야 二千二百八十九萬 前年同期에 比하야 九千五百八十二萬八千圓이 各增加되엇는바 預金貸出別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 | |
|---|---|
| 定期 | 一七九、二〇四 |
| 當座 | 五七、七三八 |
| 特當 | 五九、五一六 |
| 通知 | 一七、五一八 |
| 其他 | 六六、四八二 |
| 合計 | 三八〇、四五八 |
| 前月末 | 三七一、六〇六 |
| 前年同期 | 三四八、一三〇 |

◇貸出

| | |
|---|---|
| 證書貸 | 二二一、九四一 |
| 手形貸 | 二七五、九五二 |
| 當座貸 | 一七、一〇五 |
| 割引手形 | 五二、九四六 |
| 荷爲替 | 一四、八七六 |
| 其他 | 三六七、三八二 |
| 合計 | 七六一、二〇二 |
| 前月末 | 七三八、三一〇 |
| 前年同期 | 六六五、三七四 |

## 經濟界消息

○津田鐘紡社長入京=鐘紡社長津田信吾氏는 同社永登浦工場落成式에 出席키 爲하야 十四日午後十時三十五分着入京朝鮮호텔에入하리라고

## 取引停止 (十一月十一日)

▲綢緞布木商京城府 鍾路二丁目七六番地德興商會任永宰 ▲京業京城府堅志町八三番地韓宗烈

## 南浦米倉新米入庫

南浦米倉會社鎭南浦支店에는 去三日부터 新米入庫가잇는데 十三日까지에 百五十石의入庫가잇섯다 이外에海州支店에 十三日二百石의新米가 入庫되엇슬뿐으로 南朝鮮方面은 遲延되는模樣이오 이에依하야보면 米倉에의新米入庫는前年보다 約二十日間遲延되엇다한다

## 海運市況硬化

海運市況은世界的上向으로海運市況으로 米運賃等에는 各其運賃引上問題가擡頭되엇스나 阪神仁川六十五圓을維持하고 今後海運市況이 硬化되어도 [illegible] 運賃은 [illegible] 一萬位인 [illegible] 引上할意向이다

## 更生水組補給金

更生水利組合은 初年度인 昨年은 非常한豊作이엇는대 日本內地가 凶作이엇던때문에 米價高에依하야 國庫補給金의 減額或은 全部不要인 組合이잇서 結局聯合會에 三十二萬餘圓의 積立을하는 好調의 第一步를 踏出하얏스나 本年은 未曾有의 風水害、旱害、病虫害等으로 各組合이모다 打擊을 受한데다가 初同(以上廢南)의 四組合案、陽東(京畿)北面第二成一粒의 收穫도업는 慘狀임으로 今年의 國庫補助金六十七萬三千餘圓만으로는 不足함으로 昨年의 積立金三十三萬圓의 半分만 本年分에 繰入하기로 內定하고 目下聯合會委員會를 開하야 三十五組合의 本年度組合費를 決定하고잇다한다

지난米穀年度에잇서 今年의貿易制限을主로한拂下를 行코잇슴으로 그必要가업다는論이잇서 只今은 政府의意向이 全혀白紙인듯하다

## 經濟寸鐵

城府鍾路四丁目 一八八番地洪淳甲

○空前의大增收豫想을發表햇스나 風水災로 空殼만크고品質不良하야 實際收穫은얼마나될가
○朝郵、商船連繫로 朝鮮海運을 支配하리라고 鄭船이나 商船이 찾아리 독차지해버리지
○朝鮮米輸送은 또混亂이되리라고 何如間 말성도만타
○群少鑛山合同은 結局 大資本 進出로되리라고
○이것저것모다 大資本 大資本

## 商況 (十四日)

### 株式 依然氣迷 保合

前場保合 今前場에 東新은 百三十九圓八十錢으로 昨後場比價와同價이엇스며新三十五圓九十錢 鐘新百七十八圓八十錢 大新七十一圓十錢 日産八十四圓十錢等 各寄付되엇는데 前場은 依然三十九圓臺에서 東新은 推移되다가 大引臨時에는 商勢多少 軟化하야 八圓八十錢으로 引되엇다 그러나 雜株는依然頑强하야 鐘新은百八十圓으로 高價를보고 九圓六十錢에 大引되고 日産八十四圓五十錢 朝新三十五圓八十錢 大新七十一圓二十錢에各其大引되엇스며 後場은 本曜日이므로 例休이엇다

### 人氣依然氣迷

近日은 東新이 百四十圓臺에 올려노코는 다시 後退하는 光景을 連日繼續할뿐이데 見解에 따라서 意見이 區區不一하야 强氣로서는 潛在的景氣를 强調키爲하므로 畢竟 大市勢를 내고 야말것이라고 豪言하나 軟派로서는 百四十圓○臺를 우으로 買拔치못하는 東新의 伸力을 可知니 過重한 取組와함께 月末에 가까워가면 必是 大幅低落을 不免할것이라고 主張하고잇는바 惡材料에 感應이적어 投物이적고 御目에는 오히려 買氣가 潛在한것으로 보면 底意强堅하다고는 하나 强氣로서도 積極行動은 回避하고 잇는 以上 取組가 만허지면 질사록 賣應을 爲한 下押을 促하고 잇다고도 볼수잇는것이니 要컨대 市勢는 區區少高下의 跛行的商情에 不過하고、人氣는 依然한 氣迷狀態를 未脫한觀이 不無하니 새로운 큰動機가 업는限 이대로 大市勢를 展開키는 至難할것갓다

### 大局으론樂觀

市場人은 늘市場人氣에만 拘

## 今日財界 (十四日)

◆米 (單位錢) 今日正 先付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正米 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一等 [illegible] 二等 [illegible] 三等 [illegible]
◆市中金融 一分賃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正 先付日
朝取 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綿糸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 FAQ [illegible]

泥하지말고 大局을 觀察하야만 되다고 하면서도 市場에 들어서면 그空氣에 支配되는것이며 近者와가티 政治經濟의問題를 앞두고 大局이 外交問題가 모다 不透明한데에 잇서서는 市場人氣에 끌어들기가 매우쉽다 그러나 大局的으로본다면 不透明하면서도 財界의根底가 조치못하다고는 할수업슬것이니 國家消費는 全般的으로 低金利로 稀釋되어 子引下等으로 低金利徹底化에依한效果도 漸次들어날것이며 物價도 全部騰貴할것은 必至의일이다 政治的不安도 一般解消되어다고볼수잇고 國際的으로도그 다지不利한立場에 잇다고는못할것이며 年末의 好景氣時代를압둔 今日에잇서서 經濟活動의前途를 悲觀할수는업을것이니 大勢는依然樂觀이라고 보아도 조흘것이라는말이잇다

### 實物前場取引

▲大同産業 [illegible] ▲大日本麥酒 [illegible] ▲日滿電業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日華紡織 [illegible] ▲沖電氣新 [illegible] ▲朝鮮信託 [illegible] ▲九州水電新 [illegible] ▲朝鮮鐵道 [illegible] ▲米倉新 [illegible] ▲京城電氣新 [illegible] ▲朝鮮重工業 [illegible] ▲朝鮮鐵道新 [illegible] 合計二六〇枚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米貨債의 新進步調를보고 內國債도 買氣를誘致하야 四分利는 少高模樣을示하엿스나 全體的으로는 依然閑散하야 佛債는 人氣가 强하야二十錢 上進하엿스나 米貨는金融關係로 西側의 빠리키로買物이잇서 六分半 五分半共히一圓買進되엇다

###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三五▲一回四分一〇〇、八五▲佛貨 一九五、八五 分一〇〇、九〇▲一回四分一〇一、三八▲第三五、三二▲一回四分一〇一、三二▲佛貨一九五、九三▲米貨六分半三九〇、五〇▲滿洲公債一〇〇、二〇

## 期米 戾賣物로 不勢

### 前場保勢

昨後場阪地二十

### 株……

昨今의 步調로보아서는 强氣가 期待하는 東新의 擴張은 尙早의觀이不無▲그보다도 株式界에잇서서의 東新時代는 벌서過去에 屬한것가티 보이는것▲氣迷人氣속에서라도 帝人이 百二十圓臺로 漸騰하는것을보라!亦是今後株界의 妙味는 雜株의選擇에 잇슬것

### 米……

今年가튼凶作에 朝鮮米의第一回豫想이 二千二十九萬餘石이나되엇스니 昨年實收는 二千二、三百萬石은 無難하엿슬모양 ▲그러치만 今年稻作은 空殼이多하고 또米質이不良하기때문에 正租三百八十斤을要하지안코는 玄米一石을製造키難하다고云云▲그러데 今正米市場은 産地出廻가 年同期보다 比較的 稀薄하고 또低價에는 持米側이賣應치아니하올보면 低落보다도昂騰될可能性이多할모양▲實米化하는當限이 依然八圓四、五十錢臺를維持하올보면 中限도不遠한 將來에 八圓臺로上昇할岐路?

## 豫想은增收나

### 正米依然强硬

朝鮮米의第二回豫想은 第一回豫想보다 二、三百萬石의 減收로豫想하엿든것이 도리어二十五萬石의增收로 二、三百萬石以上의 實은 第二回 업는 期正兩界는 一時瓦落을告하나 數字를示하엿다 暫주잇다 그러엿슬뿐으로 日本內地米第二回豫想의約百五十萬石減收發表와 共히 定期는五十餘丁의反撥 正米는三十錢以上의 高價를보이어 依然强硬을 持續하고잇스며 그런데 朝鮮米二回豫想의 二千萬石以上은 新記錄을 突破한數字로 此에對하야 一般商論을 綜合하여보면 新調查의 方式은確實한것으로 보지안흘수업스나 調査方式에依한 一千五百五十七萬石이란 數字는 昨年實收高一千七百八十萬石에 比하야 二百三十萬石減收박게 아니되는그點으로보아서는 너머虛張된 嫌이업지아니하다 그럼으로 越年後에 發表될實收高는 第二回豫想보다 相當한 減收를 豫想할것으로 觀測되다고 某擴張側은主張한다

## 後場不勢

後場은 二十七圓四十九錢인 一丁低로始하야 後場三十六錢으로 最終三十九錢에引하야 止하엿다

## 堂島前場情報

材料一巡이데다가木村店으로부터 實物二千石이 出入되여 東京側이라고 보이는 玉이同時로부터 三千石과西山의 買乘이잇서서 寄付에는 相當된後 材料一巡에 戰意가 乏缺되어期近의 關東으로 朝鮮米가本格的出廻期에 들어가實物漸增傾向을 보이게되엇스므로 이것의壓迫念慮를 깁게하게되어 一般은 地形勢에望視에 東京市場은 昨夕當限三五〇〇石中一九六〇〇石 先限은一九六〇〇石 解合이成立되엿는데 價格은 昨後場止價로 決定되엇다

## 京城强調

定期는依然留置이나 當用必需側의買進으로二十錢昂進하엿다 ㊐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二二、

## 各地正米

## 競爭入札依賴

### 黃海道共販에서

黃海道共同販賣組合에서는 正租十二萬石을 競爭入札에依하야 共同販賣에 附하려고 仁川穀物協會에 對하야 入札勸誘를依賴하엿는데 依賴한 그書面에依하면 旱魃의 被害가 적지안헛스나 日氣가 良好하야 豫外의 好績을 呈하엿다는바 共同販賣의數量과

## 仁川堅調

日本內地實行은 不振이나 當用側의買進에 氣配二十錢反撥이엇다 ㊐三等二八、九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 二二、二〇

## 釜山保合

産地實物은 增加하나 探算良好로 當用側、酒米原料向으로 팔팔려 商談은자못 順調로 進行되는 模樣이다 ㊐三等 二八、七五 四等二八、四五 一等白米 二二、二〇

## 大邱强調

期米는 倚然히 實行進捗과 地場의 從來的買로 加하야 市況은 자못 强調를보혀다 氣配二十錢高 ◆三等 二八、四〇 四等 二八、一〇 一等白米二一、九〇

## 群山反落

産地는 依然積極的으로 實物을 내노치안흐나 定期緣延와 日本內地實行不振에 買氣衰縮되어 氣配二十錢反落이 엇다 ◆三等二八、六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二一、四五

## 木浦同調

天候良好에 産地實物이 豊富하게나오나 日本內地不買로 氣迷가 기피 市況은 依然沈靜에 保合이엇다 本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五〇 一等白米二二、〇〇

## 期米取組內容

朝取期米取組內容

例例은 左와如하다 ▲海州一五、二〇〇石 ▲延白二六、〇〇〇石 ▲金川一、八〇〇石 ▲平山四、二〇〇石 ▲佐藤五、七〇〇石 ▲松禾四、七〇〇石 ▲長淵六、六〇〇石 ▲殷栗四、〇〇〇石 ▲信川一四、二〇〇石 ▲安岳一〇、二〇〇石 ▲黃州四、五〇〇石 ▲鳳山八、四〇〇石 總計一二〇、五〇〇石

[illegible — market quotation tables: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大阪金利, 京城正米, 仁川正米, 京城綿糸布市況, 京城絹布, 鹽油沖賣, 鹽肥沖賣,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大阪短期期米, 朝取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短期, 東京現株, 大阪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正米標準値,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況,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日本麥粉市況, 滿洲商況, 大豆, 安東大豆, 豆油, 豆粕]

柳來恒取引店 株式 京城府仁川本町

米 株 仁川 京城 益 東益夏商店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府明治町 代金引換販賣 地方注文 送料先金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234